

성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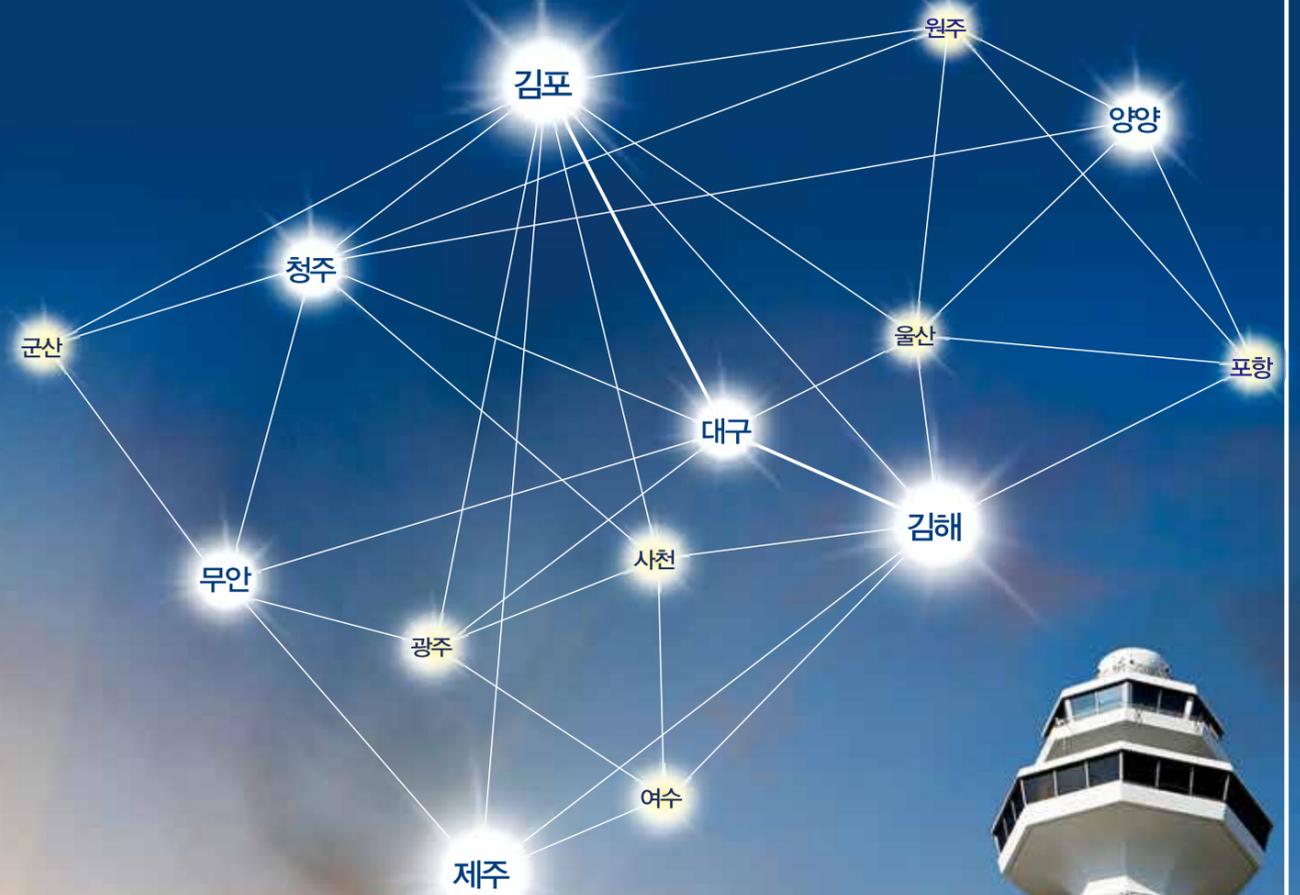
星 武



星武臺

2019. July Vol.48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대한민국 하늘길을 빛내다!



만남의 기대,
 여행의 설렘이 시작되는 곳,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우리는 한국공항공사입니다.



KAI

2019년 항공우주논문상 공모전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미래의 주역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모분야

정책/경영, 기계/엔진, 재료/소재, 전자/전기
 ※ 자세한 내용은 KAI 홈페이지 (홍보센터-항공우주논문상) 참조

응모대상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 재학생 및 휴학생 (전공불문)

논문제출 및 방법

- 논문마감 | 2019년 8월 30일(금)
- 제출방법 | E-mail 접수 kaiaward@koreaero.com
- 수상결과 | 2019년 10월초 예정
- 시상일정 | 2019년 10월 17일(목) : 서울ADEX개최기간
- 문의처 | 055)851-2799, 2672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추가(항공우주논문상)

시상내역

총 시상금: 1700만원(시상수:11건)

시상구분	시상	부상	
최우수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명	표창(상패) 및 상금 각 300만원
	KAI CEO상		
우수상	2명	표창(상패) 및 상금 각 200만원	
장려상	5명	표창(상패) 및 상금 각 100만원	
특별상(최우수상 논문지도교수)	2명	표창(상패) 및 상금 각 100만원	

- * 수상자(주저자)는 당사 채용전형시 서류전형 면제 (논문주제와 연관된 당사 채용분야 지원시)
- * 우수작품이 없을 경우, 해당 부문 수상자가 없을 수도 있음
- * 4인 이내의 팀으로 공동 작업 가능
- * 상기 일정 및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홈페이지 www.koreaero.com를 참조하십시오.



Contents

2019. July Vol.48

- 004 공군사관학교 교가
- 005 교훈 & 공사십훈
- 006 총동창회 소식 - 추억하다. 기억하다.
- 022 공군 및 공사 소식 - NEWS 개교 70주년 맞은 공군사관학교 외
- 028 기수별 동창 동정 - 동창 소식 함께 나눔

030 기획 기사 - 화제의 동창

‘행세’가 아닌 ‘행동’하는 성무인(星武人)과의 만남

- 정경두(30기)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 내 인생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공군사관학교
- 류희인(27기) 직전 행정안전부 안전차관 |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보라매의 눈
- 김도호(28기) 군인공제회 이사장 | 공사가 가르쳐준 삶의 가치와 인생관
- 서철모(40기) 경기도 화성시장 | 신세계를 열어준 인생 최고의 선택
- 이재강(24기) 국방전직교육원장 | 내 삶의 도장(道場) 공군사관학교
- 오창환(25기)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 | 나를 성장시킨 일등 공신, 생도 생활
- 김종석(30기) 기상청장 | 인생 2막을 두려움 없이 걷게 도와준 인생의 지팡이
- 이인기(23기) 마디사랑 병원 | 공사인의 자긍심이 만든 성공의 길
- 이준신(명예 26기, 52기 모친) 보훈휴양원 원장 | 남편과 아들이 지켜낸 나라사랑

회원기고

성무인의 이름으로

- 060 모교는 포근했고 행복했다 | 윤병인
- 062 제복 입은 사람들 | 정창욱
- 065 니 뭐하고 사노? | 오중기
- 066 은퇴(전역), 새로운 출발이다 | 백승웅
- 068 봉우회는 남다르다 | 이문호
- 070 ‘보라매상’ 수상 소감 | 정승현
- 071 수석 졸업 소감 | 김도희

우정기고

- 080 아쉬운 석별, 그리고 뜨거운 재회 | 홍순택
- 082 공군사관학교 외국 수탁생 졸업 소감 | 함자 테하미, 싸남텡 빠띠야
- 085 삶의 가치를 되문게 한 성무인들과의 만남 | 박미진
- 086 최강 불변의 공군 써포터즈 공학모(공사 학부모회) | 서성복

성무인 단상

보라매의 삶을 기억하며

- 090 다섯 가지의 ‘지팡이’ | 송대성
- 093 시 - 작별 | 배기준
- 094 일상(日常) 속에서 | 한홍섭
- 096 내 삶의 여정(旅程) | 류춘열

총동창회 알림

- 102 서울 보라매공원의 옛 ‘성무교회’ 문화재 등록
- 103 회비 납부 안내
- 104 평생회비 납부 현황
- 105 후원금 현황
- 106 제26차년도 운영 결과
- 110 성무 칼럼 - 유태인의 지혜 ‘Family ship’
- 111 편집 후기 & 기고 안내

쉼터

- 010 한국인들만 모르는 3가지
- 026 남편을 죽이는 방법
- 034 모성애와 효심
- 035 이런 사람
- 044 아내를 죽이는 방법
- 050 기도
- 058 칭찬의 기술
- 064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 072 아, 韓國은 무서운 나라!
- 084 삶에 지친 당신에게
- 088 여자가 되고 싶은 남편
- 108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 109 노화 늦추는 생활습관



표지 해설

- 제호 ‘성무’: 제2기 이 곤 님의 서체
- 성무탑: 우리들 영혼의 기지 공군사관학교의 상징물
- 표지 그림: 태극 문양으로써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 새 동지의 형상화로서 공군사관학교가 사회생활의 본향임을 암시. 성무인 각자가 다양한 색깔과 모양으로써 역동적으로 약진하고 회귀하는 모습을 표현

공군사관학교 교가

작사 최용덕
작곡 김성태



1.우 리_는 피 끓_는 배 달 의_아_ 들
2.우 리_는 하 늘_을 배 우 는_젊은 이



높 고 빛 나 는 한 배 님 정 신 이 어_받 아 서
높 고 참 다 운 군 대 의 정 신 새 로_이 룩 해



누 리에 떨_ 치 고 자 하 늘 로 솟 나 니
나 라를 지_ 키 는 힘 하 늘 로 달 린 다



우 리들 영 혼 의 기 지 공 군 사 관 학 교
우 리들 충 성 의 원 천 공 군 사 관 학 교



하_ 늘 은 우 리 의 일 터 요 싸 움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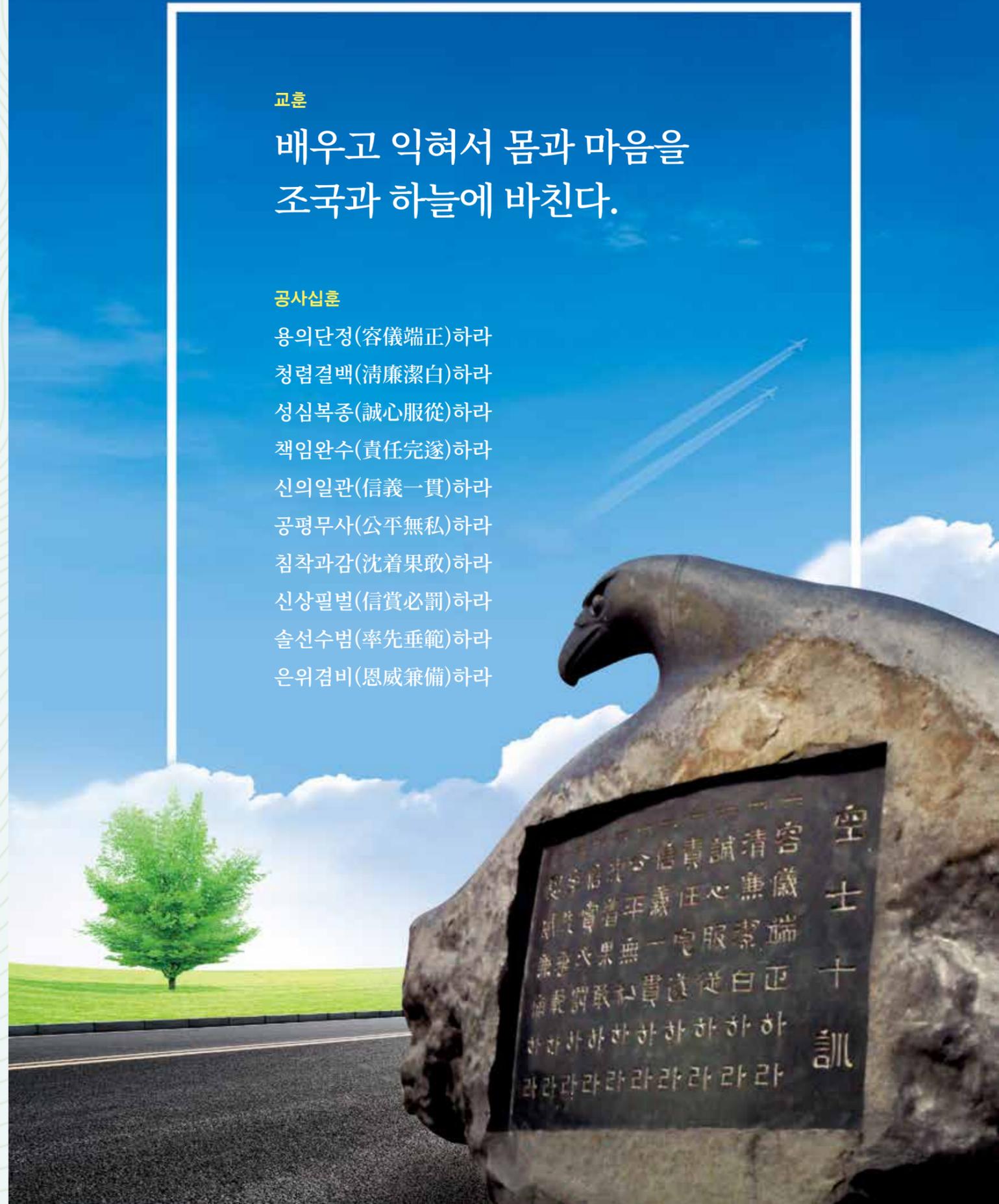
하 늘 에 살 면_서 하 늘 에 목 숨 바 친 다

교훈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

공사십훈

용의단정(容儀端正)하라
청렴결백(清廉潔白)하라
성심복종(誠心服從)하라
책임완수(責任完遂)하라
신의일관(信義一貫)하라
공평무사(公平無私)하라
침착과감(沈着果敢)하라
신상필벌(信賞必罰)하라
솔선수범(率先垂範)하라
은위겸비(恩威兼備)하라



총동창회 소식 추억하다. 기억하다.

공군사관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삶의 가치로
매 순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성무인들의
진한 삶의 이야기를 만난다.



공군사관학교 방문

회장단은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해 교장과 함께
현역 및 생도들이 동창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독려했다.



제26차년도 정기 이사회

18기부터 46기까지 각 동기회 회장과 총무 등
총 61명의 이사가 참석해 26차년도 운영 중점을
“동문이 함께하는 총동창회”로 정했다.
이와 함께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2018. 8. 8

공군본부 방문

회장단은 공군본부를 방문해 이왕근 참모총장과 참모들에게 총동창회의 활동과 자문 능력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역 동문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동창회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었다.



2018. 9. 12

자문위원 간담회

역대 총동창회장과 사무총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모시고, 동창회 운영과 발전을 위한 조언을 청취했다.



2018. 9. 19

이사 기수 간담회

27기부터 46기까지 기수별 동기회 회장과 사무총장을 초청해 동창회 운영과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국인들만 모르는 3가지

“한국은 우리가 보기에 부러울 정도로 고속성장을 이뤘는데, 정작 한국인들은 그런 인식이 없는 것 같다.”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보며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이야기 중 하나다. 한국인이 놓치기 쉬운, 그러나 꼭 알아둬야 할 외국인들이 지적하는 한국인만 모르는 3가지 이야기.

1 우리가 과연 잘사는 나라인가에 대해 국민 중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눈에는 한국은 OECD 회원국으로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의 ‘살 만큼 사는 나라’로 보인다. 물론 잘 먹고 잘사는 것에 대한 기준은 상대적이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10~20년 전과 비교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못산다고 불평불만을 하면서도 ‘호강에 겨워한다’는 소리를 함께 듣는 것이 그리 기분 나쁜 일은 아니다.

“**외국인이 지적하는 한국인만 모르는 3가지**
첫째, 자기들이 얼마나 잘사는 나라인지 모른다.(경제력)
둘째,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모른다.(안보상황)
셋째, 이웃인 중국·일본이 얼마나 대단하고 두려운 존재인지 인식 못한다.(역사·외교)”

2 세계의 시각으로 우리는 아주 위험한 ‘동네’에 살고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사는 장본인인 한국인들은 위기의식과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란다. 위험에 오래 노출되거나 익숙해지면 그 상황에 무신경·무감각해진다고 하지만, 자국의 안녕이 걸린 ‘안보적 위험’에 무감각하다는 것은 얘기가 달라진다. 국가 존립에 관한 문제이며 국민 자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6.25전쟁으로 유레가 드문 사상자를 내고도 아직도 ‘휴전’ 상태인 나라, 휴전선 남북으로 100만 명의 병력이 실전 대기하고 있는 나라, 북핵의 위협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무핵의 나라, 선군 정치로 무장한 세습 독재국가가 수시로 국지도발(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일삼는 지역이 있는 나라,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도 북쪽을 찬양하는 사람들과 단체가 어엿하게 활동하는 정말 ‘이상한 나라’이다.

3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대단히 무서운 존재인 중국과 일본을 앞뒤로 두고 있으면서 이를 우습게 보는 국민은 한국인 밖에 없다. 중국인을 ‘때놈’, 일본인을 ‘왜놈’으로 얕보고 깔보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쓴다. 중국은 땅덩어리가 크고 사람이 많지만, ‘때놈(되놈: 오랑캐)’라고 비하한다. 그저 때로 몰려다니는 더러운 부랑자들의 느낌이 나는 모양새로 여긴다. 일본은 섬나라에 사는 왜소한 체구(矮軀/왜구)를 가진 미개인 정도로만 여긴다. 이와 함께 오래 전의 역사들을 마치 현재 진행형처럼 적용하려 든다.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중국에게 수백 년간 수시로 침탈당하고 조공을 바치며 섬겨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본에게는 전국토가 초토화되고 임금이 도망치던 ‘왜란(임진, 정유)’과 국권을 잃고 40년을 노예로 살았던 뼈아픈 역사(일제강점기)가 존재한다.

중국은 세계 4위의 국토와 1위의 인구 대국(14.2억명)이자, 2위의 경제 대국이다. 일본은 세계 61위의 국토와 인구 1.3억명, 3위의 경제 선진대국이다. 이에 비해 한국(남한)은 107위의 국토와 인구 5천100만명, 12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다. 작은 나라로서 국력이 강하면서 큰 경제력을 가진 것은 경외(敬畏)로운 일이지만, 중국은 물론이요, 일본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





2018. 11. 10

테니스대회

총동창회 최초의 친선 테니스대회를 경기도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현역 및 예비역 동문 58명이 참가했다.



2018. 11. 14

바둑대회

제16회 친선 바둑대회를 공군회관에서 개최했다. 4기부터 32기까지 41명이 참가해 공동의 취미활동인 바둑을 통해 상호 친선교류의 시간을 마련하고 전통적인 공사의 바둑 열기를 이어나갔다.





2018. 12. 5

순조회 초청행사

공군전우회와 함께 '순직조종사 부인회(순조회)' 회원 28명을 공군회관으로 초청해 위로행사를 열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연하게 생활하는 가족들께 경의를 표하고, 공군 가족으로서의 소속감으로 항상 밝고 건강하길 기원하고 격려했다.



2019. 2. 18

67기 졸업생도 격려 간담회

총동창회장은 졸업을 앞둔 67기 생도들에게 『군 생활과 자아실현』이라는 주제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사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긍심 넘치는 군 생활을 통해 멋있는 군인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기 역할을 다하면서 신뢰와 겸손 그리고 긍정적 에너지를 확산해 하늘로 우주로 날개를 활짝 펼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생도 개인 이름이 새겨진 졸업 기념 코인을 수여하고 졸업을 축하했다.



2019. 5. 2

신임 참모총장 취임 인사 방문

신임 참모총장 원인철 대장(32기)이 총동창회를 방문해 취임 인사를 했다. 총동창회장은 이 자리에서 회원들의 자문 역할 확대에 관해 대담을 나누었다.



2019. 4. 24

등산행사

서울대공원 삼림욕장에서 4기부터 29기까지 260여 명의 동문이 참가해 선·후배 간 만남의 시간을 갖고 모처럼의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눴다. 22기는 가장 많은 수가 참가해 최다 참가상을 받았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참가해 자리를 빛낸 4기 회원들과 임관 60주년이 되는 7기 회원들께는 특별 기념품을 증정했다. 7기 김준수 회원은 100만 원의 성금을 후원했다.



2019. 5. 25

▶ 50주년을 맞은 17기분들이 '열병'을 받고 있다.

임관 기념행사

공군사관학교에서 동문과 가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7기, 27기, 37기, 47기, 57기에 대한 10주년 별 임관 기념 행사를 성대히 개최했다.



2019. 6. 19

정기총회

정기총회가 6월 19일 공군회관에서 19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그동안 총동창회를 운영해 온 제26기 임원진이 제27기에 회기(會旗)를 넘김으로써, 7월1일부터는 27차연도가 개시된다. 새로이 회장으로 선임된 이영만 동문은 선배들의 전통을 계승하는 가운데, 보다 발전하는 총동창회를 만들어 나아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자랑스러운 공사인'으로서 미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심인태(30기) 동문이 선정되어 포상하였다.





www.seouladex.com



서울 ADEX 2019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 Defense Exhibition

2019. 10. 15 (화) ~ 20 (일) / 서울공항



GO BEYOND

MILITARY ENGINES

작전 준비태세 된 오늘. 내일을 위한 전력 역량 개시.

제5세대 F-35 라이트닝 II를 위한 프랫 & 휘트니의 F135 엔진은 고객과 고객의 임무를 위해 무엇이 가능한지를 새로이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혁신하고 있습니다. F-35의 전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프랫 & 휘트니의 엔진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전투기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것입니다.

FLY FURTHER AT PW.UTC.COM



A UNITED TECHNOLOGIES COMPANY

대한민국 대표 LCC 티웨이항공

10개국 31개 도시 57개 노선 운항 중

국내선 ▶ 제주

국제선 ▶ 일본, 중국, 동남아, 대양주, 러시아

* 항공 스케줄은 정부 인가 조건이며,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의 평화

누가 지켜갈까?

PONGSAN

우리 육해공군이 사용하는
다양한 탄약을 자체 개발·생산하는 풍산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일관생산시스템을 갖춘 종합탄약 생산기업
풍산이 평화의 가치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국내선

김포, 대구, 광주, 무안 출발 ▶ 제주

국제선(일본, 중국, 동남아, 대양주)

서울 출발 ▶ 가고시마, 구마모토, 나고야, 도쿄(나리타), 사가, 삿포로, 오사카, 오이타, 오키나와, 후쿠오카, 마카오, 산야, 원저우, 제남, 가오슝, 타이베이(송산), 타이중, 나트랑, 다낭, 하노이, 호찌민, 방콕, 비엔티안, 클락, 사이판, 괌

대구 출발 ▶ 구마모토, 도쿄(나리타), 삿포로, 오사카, 오키나와, 후쿠오카, 홍콩, 타이베이(타오위안), 나트랑, 다낭, 하노이, 방콕, 세부, 괌, 블라디보스토크

부산 출발 ▶ 사가, 오사카, 오이타, 다낭, 하노이, 타이베이(타오위안) / 제주 출발 ▶ 나고야, 도쿄(나리타), 오사카

무안 출발 ▶ 오이타 / 오사카, 나고야 출발 ▶ 괌

NEWS



제37대 공군참모총장 원인철 대장 취임

지난 4월 16일, 제37대 원인철 참모총장 취임식과 제36대 이왕근 참모총장 이임 및 전역식이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진행됐다. 신임 원인철 참모총장은 비서실장, 전투비행단장, 합동참모본부 연습훈련 부장, 참모차장, 작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등 요직을 역임 했다. 작전은 물론 기획, 전력, 교육 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두루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이왕근 이임 총장은 40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롭게 전역한다. 이 총장은 대한민국 공군의 숙원이었던 F-35A 전투기와 KC-330 공중급유기를 도입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공군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제 50·51대 공군사관학교장 이·취임식



공군사관학교에서는 50대 학교장 이임식 및 51대 학교장 취임식이 거행됐다. 행사는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주관하에 역대 교장, 지역기관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무연병장에서 진행됐다.

제51대 교장으로 취임하는 박인호 교장은 취임사를 통해 “모든 교육은 기본과 원칙에서 출발한다는 기조 아래, 스스로 명예롭고 모두가 건강한 학교, 청정공군의 의미를 새기는 즐겁고 신바람 나는 학교를 만들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제71기 사관생도 입학식 밀레니엄 등이 공군사관생도 입학

대부분이 2000년도에 태어난 밀레니엄 동이가 주축이 된 71기 사관생도 입학식이 '19. 2. 14.(목) 공사 성무연병장에서 신입생 학부모와 친지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교장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교장은 이날 신입생 환영 자리에서, 공군 창군 70주년과 공사 개교 70주년을 맞아 신입생들을 국가와 공군이 필요한 항공우주 전문가,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명예로운 청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진취적이고 유능한 인재로 양성하겠다고 말하였다.



제67기 졸업 및 임관식 거행 정예 공군 장교 148명 탄생

'19. 3. 8.(금) 공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공사 제67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이 거행됐다. 졸업생과 학부모 등 약 1,60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행사는 졸업증서 및 임관사령장 수여, 임관 선서, 대통령 축전 낭독, 졸업생 소감발표, 분열 및 축하 비행 순으로 약 70분간 진행됐다.

졸업과 동시에 정예 공군 소위로 임관하는 148명(女 9명)(외국군 수탁생도 4명 제외)의 신임 장교들은 4년간의 수준 높은 학위교육과 군사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전공에 따라 각각 이학사, 문학사, 공학사 학위와 함께 군사학사 학위를 동시에 수여 받았다.



올해로 개교 70주년 맞은 공군사관학교

1949년 개교해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교훈 아래 정예 공군 장교를 양성한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가 올해로 개교 70주년을 맞았다.

공사는 6월 10일(월) 성무연병장에서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사관생도, 역대 공군참모총장 및 공사 교장, 공사 동문, 지역주민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70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기념식은 대통령 축전 낭독, 열병, 참모총장 축사, 사관생도 분열 순으로 진행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사 개교 70주년을 축하하는 서신을 통해 “공군사관학교는 으뜸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하며 대한민국 공군력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며, “사관생도들은 몸과 마음을 조국 하늘에 바치는 위국헌신 장교가 되길 바라며, 학교장과 교직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인재육성에 매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10,189명 정예 공군 장교 양성의 장

공사는 1949년 경기도 김포에서 개교해 제1기 사관생도 9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총 10,189명의 정예 공군 장교를 양성했다. 개교 직후 6·25전쟁을 맞아 전황에 따라 김포에서 대전, 대구, 진해를 거쳐 제주도 모슬포로 이전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1951년 제주도에서 다시 진해로 이전한 공사는 제1기 사관생도를 졸업시켰고, 사관생도들이 갖추어야 할 열 가지 덕목을 제시한 공사심훈과 교훈 ‘무용(武勇)’을 제정하였다. 1952년 4기 사관생도부터 4년제 교과과정을 운영했다.

1958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캠퍼스로 이전한 공사는 공군의 성장과 현대화에 걸맞은 인재 양성을 위해 초음속 풍동기(‘65년)와 T41 훈련기(‘72년) 등 최신 교육 및 훈련 장비를 도입했다. 1970년 교훈을 현재와 같은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로 개정했다. 1985년 현재 위치인 청주로 이전한 공사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1997년 3군 최초로 여성 사관생도를 선발했고, 2004년 사관생도 해외합법훈련을 최초로 실시했다.



2010년 세계 각국 사관생도를 초청하여 교류하는 인터내셔널위크(International Week)를 최초로 운영했다.

또한, 2015년 공사 전문대를 개관했고, 2018년에는 항공우주특성화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초소형 인공위성 및 무인항공기 교육, 자기 주도적 역량 개발 활동을 최초로 운영했다. 올해에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사관생도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함양하기 위해 항공독립운동사 등 역사교육을 강화해 실시했다.

‘대한민국의 하늘을 드높이는 으뜸인재 양성’ 위한 새로운 노력

지나온 70년을 넘어 다가올 100년의 도약을 준비하는 공사는 ‘대한민국의 하늘을 드높이는 으뜸인재 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세 가지 인재상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 유연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무선인터넷과 AR/VR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실전적인 사이버전 수행능력 함양을 위한 실습 교육을 운영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생도들이 주제 선정부터 연구, 발표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과제기반학습(Project Based Learning)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항공 우주력 운용 및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무인기·초소형 인공위성 등 항공우주 비행체 설계 및 제작 교육을 운영하고, 국방 및 공군 우주력 발전계획과 연계된 우주 교육과정을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올바른 품성과 국가관, 리더십, 군사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한 독립군, 광복군 관련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동맹국 국방정책 및 군사력 이해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남편을 죽이는 방법 7가지



술먹고 들어온 남편 입만 아침에 출근하기 전 출근할 옷 다려놓고 사랑의 도시락과 정성들여 해장국과 밥상을 차려놓는 거예요. 일어나면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오늘 수고했다고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목욕을 시켜주는 거예요. 뜨거운 물 때문에 열받아 죽을 수도 있어요.



평소에 안하던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잔소리 대신 칭찬과 사랑의 말로요. '왜 이렇게 변했냐?'고 물어보면 답을 안 하고 웃음으로 대답해 주는 거예요. 아마 궁금해서 죽을지도 몰라요.

현모양처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친절하고 상냥한 엄마로 남편에게 이해심이 많은 사랑스런 아내로 남편은 비위가 약해서 죽을지도 몰라요.



맛있는 요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같이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언젠가는 맛있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배터져 죽을지도 몰라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이쁘게 단장하고 야식한 옷 입고 기다리는 거예요. 밤에... 황홀해서 죽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남편에게 정성들이고 사랑하고 비위다 맞추고 행복하게 해주면 무슨 꿈꿈이가 있는 줄 알고 불안해서 죽을지도 몰라요.



아니야... 살려줘...

동창 소식 함께 나눔

성무인의 이름으로
따로 또 함께
멋지게 활동 중인
기수별 동정을 소개한다.

제5기

신성회

올해 결성 66주년을 맞은 신성회는 회원들이 80대 후반의 노익장 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월례회' 정보 교류와 동기생 소식을 주고받으며 만난 오찬으로 따뜻한 우정을 나눈다. 또한 매주 목요일 '신성회 등산팀'(서울대공원, 하늘공원, 전쟁기념관 등), 2주 1회 '신성회 바둑동호회'의 친목 모임을 통해 변함없는 전우애를 돈독하게 유지하고 있다.

제26기

아람회

최병학 박사(한국지역인적자원개발학회 회장)은 지난 4월 국회의원 회관에서 '2019 청년정책 국회세미나'를 개최했다. '청년에게 미래가 있는가?-청년 세대 갈등의 진단과 해법 찾기'라는 중요한 국가 사회적 과제를 주제로 청년실업, 청년 세대갈등과 관련한 청년 고용 및 취·창업, 청년 진로·미래비전을 둘러싼 정책여건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 및 인적 자원개발의 능동적 추진 등을 발표하였다.

제30기

창로회

정경두 합참의장(전 참모총장)이 2018년 9월 21일 46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였다. 이는 30기생의 영광이자 공사 출신으로서 역대 두 번째의 쾌거이다. 정 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동창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가 필요하다."며, 성원을 부탁했다. 그리고 30여년간 기상 분야에 종사해온 김종석 동창이 작년 8월 신임 기상청장으로 취임했다.



제15기

성익회

성익회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월례모임을 갖고 있으며, 30년 전부터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해외 거주 동기생들까지 활발하게 소통 중이다. 또한 월 1회 골프회, 주 2회 이상 당구회 등 동호회 모임으로 건강과 친목을 다지고 있다. 매월 15일은 부인들의 만남의 날로 동기생뿐만 아니라, 부인들까지 활발한 모임을 통해 친목을 돈독히 다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인 박영남 동기생이 생도 생활을 포함한 자신의 일대기를 기록한 '회고록'을 발간하여 전 동기생들에게 배포하였으며, 동기생들 모두 감동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제17기

봉우회

가입교 시절 내무생활 및 기본군사훈련을 지도해 준 14기 지도 근무 선배님들과 모임을 매년 이어가고 있다. 사회로 첫발을 내디딘 메추리들에게 각별한 애정과 혼신의 열의로써, 성의를 아끼지 않은 은공을 기억하며 50년이나 쌓아온 의리를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다.



제32기

벽공회

지난 4월 6일 제37대 공군참모총장으로 원인철 대장이 취임하였으며, 5월 10일 제36대 작전사령관 이건완 중장이 사령관의 소임을 훌륭히 수행하고 이임하였다. 그리고 대전대학교 교수 천상필 박사가 세계 최고 권위(3대)의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서 선정된 "2018 알버트 넬슨 마르퀴즈 평생공로상" 수상자에 선정되었다.



‘행세’가 아닌 ‘행동’하는 성무인(星武人)과의 만남

근년도에는 우리 성무인(星武人)들이 정·관계에서도 가장 약진한 기록을 갖게 되었다. 과거에는 대군(大軍) 일변도였는데, 금번의 기관장에 우리 동창들의 획기적인 발탁은 청렴성과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라고 자긍심을 가져도 좋은 일이다.

선진국일수록 사관학교는 단순히 군인을 양성하는 군사학교인 것이 아니다. 국가의 인재(人才)와 동량(棟梁)을 길러내는 곳으로써, 국가적 ‘동량지재’(棟梁之材, 기둥과 들보로 쓸 만한 재목. 한 나라를 떠받치는 중대한 일을 맡을 만한 인재)의 요람 역할을 한다.

이에 요직의 발탁을 단순히 운이 좋았다거나 낙하산의 결과라고 폄하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다. 각 일선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화제의 동창들을 취재하여 소개한다.



정경두 (30기)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고등학교 시절, 사천비행단에서 비행 훈련을 받는 조종사들이 주말에는 빨간 머플러를 목에 두르고 진주 시내를 활보하는 모습을 자주 접할 기회가 많았다. 그 모습이 부러워 더욱 공부에 열중했고, 그 결과 공군사관학교 입교의 영광과 임관의 보람을 안으며 생애를 온통 푸른 하늘을 누비며 지내게 되었다. 정 장관은 공군의 최고직책인 참모총장직을 거쳐 전군의 지휘관인 합참의장직을 수행하게 되었고, 현재 군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직으로 복무하고 있다.



내 인생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공군사관학교

어린 시절 품은 작은 꿈이 실현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연과 큰 행운이 따라준 것 같다는 정 장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뤄진 것에는 공군사관학교의 전인교육(全人教育 :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자질을 전면적·조화적으로 육성하려는 교육. 지·덕·체를 고르게 성장시켜 넓은 교양과 건전한 인격을 갖춘 인간을 육성하려는 교육)의 힘이 컸다고 말한다.

“공군사관학교는 아무것도 모르고 서울에 올라왔던 제게 국가관, 군인 정신, 전우·동료애 등 주위 동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법을 심어 주었습니다.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깨우쳐 주었고, 조직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요령도 교육시켜주었습니다. 현재 장관의 지위에 있지만, 생도 시절 당시에 배운 공사십훈(空士十訓)과 같은 사관생도 생활신조를 언제나 철저히 지키면서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를 발전시키는 공사의 힘

공사졸업 후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선 조종사 생활 속에서도 능력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틈새 시간을 할애해 꾸준히 공부하던 그는 공군대학의 교관으로 근무하며 일과 후에 가까운 선배들과 함께 일본어 학원에 다녔다. 그것이 기회가 되어 일본항공자위대 간부학교 지휘참모과정(1994년)과 항공전략과정(2004년)에서 공부할 기회를 부여 받았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어 학원에 다니지 않았으면 해외 교육의 기회는 영원히 없었을 겁니다. 덕분에 일본 항공자위대 간부학교 교육을 통해서 국제안보환경, 정책, 전략·전술, 작전계획, 리더십, 국가이익 등을 많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군 생활하면서 가족이 유일하게 해외 경험을 한 시간이기도 했으니 공군에게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남대학교 MBA 석사과정은 미래 우리 군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당시 분위기에 따라 공부를 시작했다. 업무와 야간근무를 보며 공부를 병행해야 하는 힘든 시기였지만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국방조직의 운영도 경영 마인드가 있어야 효율적으로 지휘관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좋은 경험이었다.

원칙을 지키며 굳건하게 걸어온 단 하나의 길

공군사관학교 입교 이후 평생 군인이라는 한 길만 걸어왔다. 흔들림 없이 한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고 철저히 지키고 노력한 덕분이다.

- 첫째, 기본과 원칙대로 한다.
- 둘째, 어려운 위기상황이 올수록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 정신을 갖는다.
- 셋째, 함께 하는 사람들에 대해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정신을 갖는다.
- 넷째, 부하, 동료에 대한 사랑이며 정신인 ‘꽃꽃 정신’(나태주 시인의 ‘풀꽃’-“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와 고은 시인의 ‘그 꽃’-“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을 항상 생각하며 산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
그 기회는
공군의 은혜

이러한 원칙과 정신을 살려 참모총장 시절 청·정·공·군(청렴한 공군, 정직하고 정의로운 공군, 공정한 공군, 군 기강이 확립된 공군)을 모토로 하였고, 현재는 청·정·국·방(청렴한 국방, 정직하고 정의로운 국방, 공정한 국방, 방위태세가 확립된 국방)을 모토로 국방을 지휘관리하고 있다.

합참의장으로 재직하며 국방장관직을 제의 받았을 때 두려움이 앞섰다고 고백한다. 공사출신으로서 역대 2번째이자 전임자 이후, 24년만인 자리를 과연 잘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염려되었던 것.

“합참의장 임명 때부터 당시까지의 경험에 의존하기보다 연구와 공부를 더욱 많이 하며 지휘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하루하루를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후배들의 앞길을 영원히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흔들리지 않고 정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관직 끝날 때까지 변함없이 지금처럼 할 것입니다.”

정경두 장관은 공군사관학교를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표현한다. 공사출신 장관으로서 또 다른 역사를 쓰게 된 배경에 사관생도의 교육이 근간이 되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서 충성심, 명예심, 싸우면 이기는 강인한 정신력, 건강한 체력, 기초 지식과 전문성을 이해할 수 있는 수학(修學)능력 등, 현재의 자신이 있기 까지 그리고 국방장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기본을 주었다. 그리고 생도교육을 잘 마치고 졸업 및 임관 이후에는 비록 돈 많은 부자는 아니더라도 검소하게 생활하면

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살아올 수 있도록 해주었다.

역사적인 소명 완수를 위한 공군의 지지를 바라며

정 장관은 자신은 공군의 가족이자, 공군 최고의 책임자인 참모총장을 역임했기에 우리 군과 공군의 전력 강화, 우수 인재 양성 및 선발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군 출신 장관으로서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끝으로 공사 식구들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남겼다.

“저는 국방부 장관직을 수행함에 오로지 평생을 바쳐온 국가안보만이 관심사이고 저의 역할이며, 역사적인 소명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부디 정파적인 색안경보다 한 지붕 아래 함께 살아가는 식구로서 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과 격려로 지지해 주고, 배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이 공군 인재들이 보다 넓은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맡아 멋지게 활약할 수 있는 계기와 비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후배들도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 보라매의 기상과 웅지를 갖게 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모성애와 효심

바다에 사는 어미 연어는 알을 낳고 옆에서 알을 지킨다.

갓 부화해 먹이를 찾을 줄 모르는 새끼들은 그 곁에서 자신들을 지키는 어미의 살코기를 뜯어 먹으며 자랄 수밖에 없다. 어미 연어는 새끼들을 위해 산 채로 살점이 뜯기는 극심한 고통을 참아낸다.

새끼들은 어미의 사랑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어미는 결국 앙상한 뼈만 남아 소리 없이 죽어간다. 그래서 연어를 '모성애의 물고기'라고 한다.

민물에 사는 어미 가물치는 알을 낳고 바로 실명한다.

먹이를 찾지 못해 배고픔을 참을 수밖에 없다. 어미의 사랑으로 세상에 나온 수천마리의 새끼들은 본능적으로 어미가 굶어 죽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마리씩 자진해 어미 입으로 들어가 굶주린 배를 채워준다. 새끼들의 희생으로 생명을 이어가던 어미가 눈을 다시 뜰 때 즈음 남은 새끼의 양은 처음 부화한 알의 십분의 일이 안된다. 대부분의 새끼는 자신의 귀한 생명을 어미와 형제를 위해 희생한다.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고 말하는 이유다.

살면서 우리는 자녀이자,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된다. 연어 같은 모성애로 자녀를 품고, 가물치 같은 효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지. 부모님께 하는 만큼 자식에게 돌려받겠다고 했던가!! 이 역할들을 물고기보다 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이런 사람



식사 후에 밥값을 먼저 치르는 이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보다 관계를 더 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일할 때에 주도적으로 하는 이는 바보스러워서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다툼 후에 먼저 사과하는 이는 잘못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아끼기 때문이다.
나를 도와주려는 이는 빛진 게 있어서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늘 안부를 보내주는 이는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상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류희인 (27기, 예소장)
직전 행정안전부 안전차관
(국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직전 행정안전부 차관은(이하 전 차관) “재난과 안전을 다루는 분야에서 악마(惡魔)는 ‘디테일(detail, 작고 세밀한 부분)’에 있다”고 강조한다. 작기에 경시하기 쉽지만, 무시하거나 소홀했을 때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불씨가 되기 때문이다. 류 차관은 그런 작은 차이도 놓치지 않고 관리하는 능력을 사관학교 교육을 통해 얻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생도 생활에서 익혔던 습관들이 오롯이 몸에 배어있었던 것. 덕분에 꼼꼼하지 않고 털렁거리는 성격이었던 자신이 숨어있는 잠재된 위험요소나 문제점을 안전전문가들보다 먼저 식별해내고 대응하며, 국가재난과 안전을 개선하는 현재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었다고 말한다.

우연에 최선이 더해졌을 때

사관학교 출신으로서 류희인 전 차관은 이례적인 삶을 살아왔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연한 기회에도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햇병아리 조종사 시절의 우연한 기회가 삶을 바꿔놓는 단초가 됐다. 공부하지 않는 것을 질타하는 비행대대장의 재촉으로 떠밀리듯 외국어대학교에 지원해 독일어를 전공하게 됐다. 졸업 후 비행단으로 돌아왔을 때 독일 지휘관참모대학 결원 자리 제안이 들어와 3년간 독일에서 유학했다. 그 경험은 이후 미국의 공군무관 보좌관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고, 전 세계 군사정보가 모여 있는 워싱턴에서 자신의 이름을 건 보고서를 작성할 기회를 얻었다. 독일에서도 인정받았던 페이퍼 워크(기획력)의 능력을 펼칠 기회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보라매의 눈



생도 시절 익힌
작은 차이도
놓치지 않는
꼼꼼한 습관이
안전 전문가인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원동력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마다하지 않고 노력한 시간은 국방부 정책실의 군사외교안보 자리로 이끌었다. 새롭게 발견한 페이퍼 워크의 능력을 펼칠 기회를 선택했다. 군인으로서의 삶을 바꾸는 또 한 번의 운명적인 만남이 우연처럼 찾아왔다. 대통령 인수위에서 대통령 당선인과의 점심 도시락 간담회가 있었다.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청와대 구조에서 바뀌야 할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안보정책을 정부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내에 ‘NSC체제’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리를 마친 다음, 예기치 않게도 제 주장이 받아들여져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청와대에 ‘NSC(국가위기관리센터)’가 생겨났고, 이후에도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심분 발휘해 현재까지 올 수 있었다.

조종사 경험으로서의 능력 계발(啓發)

지난 2년간 국가재난안전관리본부 조직을 관리하면서 만든 국가적 안전 관련 조치제도 변화들이 최근 들어 시작되고 있다. 최초의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을 비롯해 제도 대부분이 류 차관이 직접 착안해 시작한 일들이다. 이러한 커다란 혁신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공군 조종사로서의 경험이다.

“비행을 위해서는 외워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생각해 그에 대한 대처법도 익혀두어야 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국가를 위기로 만드는 상황에 대한 상황들을 예상하고, 대응하는 매뉴얼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비행하다 보면 계기판의 이상 상황이나 비행기의 떨림 등 세세한 부분을 주목하게 되고, 그 작은 변화들에 생사가 달려있기에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행하면서 길러진 집요함이 더해져 문제를 그냥 두지 않고 더 안전하고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현재 업무에 크게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키우기를

류 전 차관은 자신보다 훨씬 똑똑하고 역량이 뛰어난 후배들이 잠재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장을 만들고, 기회를 연결해주는 것이 먼저 군 생활을 하거나 사회에 나온 선배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 역시 법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관할조직 내에 육군 출신 위주로 짜인 불균형적인 인사에 대해 모든 군출신이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시행하고 있다.

“한 가지 길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사고하는 단정적인 태도를 벗어나기 바랍니다. 사관학교는 개개인의 능력과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는 장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새로운 길에 대한 개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김도호 (28기, 예소장)
군인공제회 이사장

사과 상자를 책상 삼아 공부하고, 지게 지고 나뭇짐을 하며 영어단어장을 넘길 때도 최선을 다해 생활하며 꿈을 키우던 어린 소년은 숙명처럼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해 전투기 조종사의 꿈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17만 회원과 10조7천여억 원의 자산을 관리하며 새로운 인생길을 걷고 있다.

모교에서 배운 소신 있는 삶

김도호 이사장의 삶은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회피하는 대신 총대 메는 일이 많았다. 군에 있을 때나 사회에 나와서도 주변 상황에 굴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 대표적인 예가 비행단 시절, 낡은 수도관에서 나오는 녹물을 마셔야 했던 일을 공론화시켰던 일이다. 그 물로 세탁을 하고 마셔야 했지만, 누구 하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 빨간 물을 페트병에 담아 식당 문에 올려놓은 덕분에 단장께서 부하들이 그런 물을 먹고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필이면 왜 내가 해야 하나?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라는 충고와 걱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실제로 소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힘든 시간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교에서 배운 삶의 가치와 정립한 인생관을 바탕으로 내가 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옳은 일이라면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가르쳐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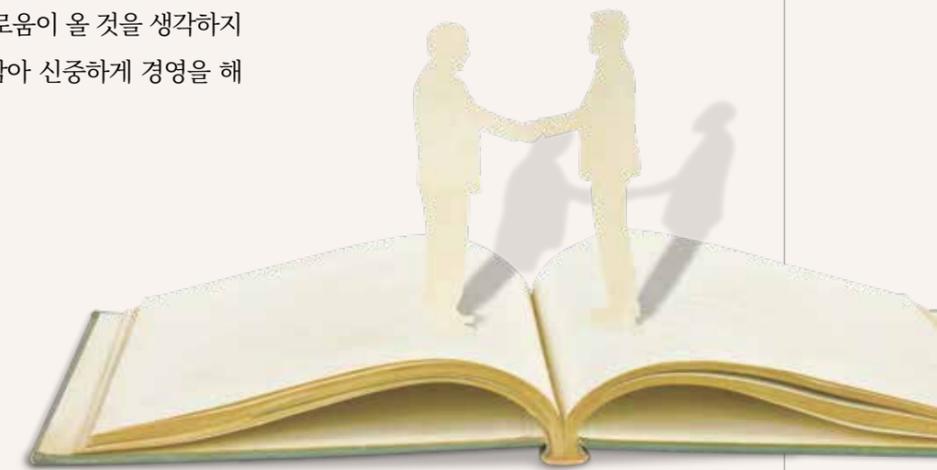
삶의 가치와
인생관

지난해 김도호 이사장은 군인공제회 창립 34년 이래, 공군 출신 최초로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17만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할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함과 동시에 책임의 막중함을 느낀다고 한다.

“이사장이란 자리는 당연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나날이 변화하는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이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김 이사장은 고전 ‘순자’ 편에 나오는 “무급승 이망패(無急勝 而忘敗: 오직 이기는 일에만 성급해서, 패했을 경우의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견리이 불고기해(無見利而 不顧其害: 이익이 되는 일만 생각해서 해로움이 올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고사를 교훈 삼아 신중하게 경영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
내 앞에 놓였을 때
옳은 일이라면
내가 해야 한다는
모교의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삽니다.



균등, 공정, 정의!

그는 취임 후 “기회는 균등하게, 절차는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원칙으로 분야별 전문성을 중심으로 인사를 단행해 눈길을 끌었다. 산하 사업체 대표이사도 과거 육군 중심의 인사를 육·해·공군으로 균별로 균형 있게 보직(민간에게도 개방)했으며, 능력 본위의 인사를 실시했다. 앞으로도 “의인물용 용인물의(疑人勿用 用人勿疑: 믿지 못하면 아예 쓰지를 말고, 일단 사람을 쓰면 의심하지 말라)”의 교훈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김도호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공사 후배들을 위한 조언과 응원의 말을 전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Harry Truman) 책상 위에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 표어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조직에서든 당당하고 배짱을 가지고 일할 때, 보람을 찾고 조직에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꿈은 꾸어야 이뤄진다고 합니다. 우리 후배들도 10년 후, 2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원대한 꿈을 꾸고 실천해 나가기를 힘차게 응원합니다.”

탄탄한 자산! 꾸준한 성장!

수만 회원의 든든한 동반자, 군인공제회



상생을 원하는 우리들의 열망이 모여 더 큰 평화를 이룹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 계획으로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보고(寶庫)인 생태습지에 군공항을 이전하려는 계획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상생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군공항 이전 계획이 원점으로 되돌아가기 바랍니다.





서철모 (40기, 예대위)
경기도 화성시장

지난해 6월, 76만 시민의 살림을 책임지는 경기도 화성시장에 당선된 서철모 시장은 자신에 삶에서 의미 있는 인생 최고의 선택 3가지 중 하나를 공사 졸업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관학교 출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공사를 졸업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시장 자리에 앉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생도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제대로 공부할 유일한 기회였기에 어려움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달게 받아들였다.

“졸업하면 신세계가 펼쳐질 거라 굳게 믿고, 간절함을 갖고 생활했습니다. 생도 시절 몸과 마음으로 익힌 ‘공사십훈(空士十訓)’은 지금도 삶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신의일관(信義一貫)하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시장이 되고 보니 어떻게 행정을 이끌어 갈 것인지,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실패가 아닌 과정일 뿐

공사 출신답게 도전을 즐기듯 명확한 목표와 의지로 삶을 개척해온 서철모 시장은 의무복무를 마치고,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된 현역이 아닌 전역을 선택했다. 자신의 꿈과 능력을 사회에서 펼치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 직장이 IMF 사태로 부도가 나면서 백수의 길로 들어섰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던가. 그해 대통령선거에서 젊은 예비역 위관급 장교를 모아 특정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결행한 것이 MBC 9시 뉴스에 크게 보도됐다.

“생애에 가장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에 일생을 걸어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신세계를
열어준

인생 최고의
선택

가장 젊은
나이에 경험한
생도 생활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가치를
중시하며
실천하면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정치인으로서 탄탄대로를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신인 정치인에게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32살에 도의원 선거에 도전했을 때 당내 경선에서 1위를 하고도 당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2위 후보에게 출마기회를 내줘야 했다.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의원이 저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후 흔들림 없이 제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성공한 정치인으로 보이지만, 많은 도전을 하며 힘들거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긍정적 마인드와 목표를 향한 강한 의지로 이겨왔다.

사회에 먼저 진출해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서 시장은 공사 후배들에게 값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사회 어디에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젊은 나이에 경험한 생도 생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도 시절 배운 가치를 중시하고 실천하면 사회에 나와서도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민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사에서 배우고 쌓은 능력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공군비행장 이전에 대한 화성시민의 바람

마지막으로 공군사관학교 출신이자 화성시장으로서, 수원 공군비행장의 화성시 이전 계획에 대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본지에 피력했다.

첫째, 왜 수원과 최인접지인 화성을 택했는지 의문이다. 과거 항공기의 성능 부족으로 행동반경이 짧았을 때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대 항공기는 속도와 성능 면에서 굳이 북방에 위치하지 않아도 전투반경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현재의 공군은 급유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차제에 항속거리를 고려해 북방에 기지를 택할 사유가 마땅치 않다.

둘째, 현대전은 각종 정보수단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무경고 하에 돌발적으로 발발하지 못하므로 후방에 위치할 경우 대응 시간 부족이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셋째, 화성시는 비옥한 토질의 농어촌 지역이다. 이곳에 비행장을 건설하면 국토의 효율도 및 주민 생활 여건과 항공기 운영상황과도 어긋날 수밖에 없고 민원은 끝도 없이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대안을 제안한다면 토질이 척박해 경제적 소득이 미흡한 지역으로써 지자체가 경제발전을 위해 유치를 원하는 지역을 추천하고 싶다. 그것은 항속거리에 무관하여 국내 어디라도 문제가 없다. 전방에서 멀수록 지상포의 위협에서도 생존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비행기지의 이전(移轉) 정책에 나의 영원한 모교이자 모기지인 공군이 전적으로 선택할 결정권은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화성시민의 바람을 내가 대변해야 함을 양해하고 심정적으로라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하고 싶다. ✈



내 삶의 도장(道場)

공군사관학교

이재강 (24기, 예대령)
국방전직교육원장

2015년 설립 이래 최초의 공군 출신인 국방전직교육원장은 공군사관학교에서 줄곧 교수, 생도부대장, 인문사회처장, 교수부장 등을 역임했다. 전역 후에는 (사)미래사회교육연구원 이사장, 홍익대와 건국대 외래교수, 아주대 특임교수 등을 지냈다. 사회의 지도자

로서의 길을 걸어온 이 원장은 자신에게 공군사관학교는 “삶의 도장(道場)”이라고 말한다.

“공군사관학교는 신체적으로 약했던 저를 강하게 키워줬고 지식의 지평을 넓혀 주었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생도 생활이라는 버거운 여건에서 독서할 수 있었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 양서들이 지금의 저를 형성하는 데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건강과 기회가 주어지는 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면서 이 은혜에 보은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공군 출신 처음으로 국방전직교육원장이라는 새로운 도전한 것도 이런 마음에서다. 교육학 전공에 상당 기간 직업교육 관련 분야에서 일한 경력과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교장을 비롯해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상임위원(직업교육 분과) 등의 경험을 통해 직업 교육에 대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에 헌신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전역 예정 장병들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했다.

“오랜 기간 몸담았던 공군을 떠날 때, 그동안 지켜준 수호자에 대한 감사함과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탐험가의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보다 자유가 많아졌다는 것은 좋았지만, 자신의 선택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낮춰주는 것이 바로 고용이다. 그러나 제대군인의 고용율은 국민평균 고용율보다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 원장은 연간 27만여 명의 전역장병 중 복학생을 제외한 약 7만 병사와 1만여 간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장병들이 장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군무에 충실하고 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도록 돕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



오창환 (25기, 예·중장)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

생도 생활에서 요구되는 인내와 절제, 그리고 극기가 임관 후 모든 생활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하는 오창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 그는 생도 시절의 경험과 공군 조종사로서의 보람을 자신을 성장시킨 일등 공신으로 꼽는다.

오 원장은 전역 후 항공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능력을 살려 항공공학과 항행시스템에 관련한 강의를 진행했다. 다양한 지식 전달과 함께 선배로서 느끼는 삶의 교훈도 전했다.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했습니다. 비록 하루 삶은 미미하지만 20년, 30년 누적될 때 나타나는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 결과가 바로 그 사람의 현재를 결정합니다. 30년 후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20년 후의 목표, 10년 후의 목표, 그리고 5년 후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 원장은 계획을 세우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즉시 지금부터 행동에 옮길 것을 권했다. 내일로 미루면 곧 그 내일이 한주, 한 달, 일 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오창환 원장은 공군출신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원장에 부임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은 군과 예비역을 위한 국방·군사·안보분야 전문연구기관이다. 국방·군사와 관련한 제반 분야를 연구·분석해 국방정책 수립 및 군사발전에 기여하고, 예비역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통해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방부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매월 KIMA 포럼과 연 1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KIMA 포럼과 세미나는 군 출신 안보전문가 이외에도 세종연구소와 유명대학 및 아산정책연구원 등 국내 굴지의 안보연구소의 권위 있는 안보전문가들을 초청해 안보상황과 부합한 의제를 선정하고 심도 깊은 발표 및 토의를 실시하고 있다. 토의 결과는 도서화해 국가의 안보정책을 수립하는데 긴요하게 활용하고 있다. ✎

나를 성장시킨

일등 공신, 생도 생활



김종석 (30기, 예대령) 기상청장

김종석 기상청장은 공군사관학교를 “자신을 늘 정직하게 이끌어 준 지팡이”라고 말한다.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자랑스럽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준 것이 바로 사관학교 교육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되새기듯 현재 청장 생활에서도 항상 사관학교 졸업 반지를 착용하고 있다.

2012년 말, 병과장 이임과 동시에 준비 없는 전역을 맞았을 때 마치 광야에 버려진 느낌이었다. 갈 곳 없어 방황하는 백수의 심정으로 물통 하나 들고 등산하며 백수로 보는 사람은 없는지 수없이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산을 오르다가 열심히 근무하는 동기생에 전화해서 뭐하냐고 묻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실망하기도 했다.

한 달이 지날 즈음 대학교 연구원 자리를 제의받으면서 백수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다. 이후 공공기관장을 거쳐 현재의 기상청장으로 근무하게 됐다.

인생 2막을

두려움 없이 견게 도와준 인생의 지팡이

“기상청장 직위는 국가 기상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30여년간 기상장교, 대학교 기상학 교수, 국가태풍센터 자문관 그리고 기상산업기술원의 기관장으로 생활했기에 어렵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보다 책임이 큰 자리라는 것에 더 큰 무게가 실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상 분야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며, 꿈을 꿀 기회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도 공군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저를 시작으로 많은 후배가 연이어서 의과대학으로 편입했고, 훌륭한 의무장교로 또 능력 있는 의사로서 명맥을 이어 주었습니다. 공군의 의무체계를 발전시킨 개척자로서 매우 큰 보람을 느낍니다.”

실제로 공군은 이때부터 특과에 대한 민간대학 위탁 교육을 제도화했다. 현재까지 의과대학에 인재를 파견해 우수한 의무장교를 배출하고 있다. 이 외에 법과대학에도 파견해 법관도 배출하고 있다. 사관학교가 단순히 조종사만을 배출하려는 기능에서 국가의 동량이자 공군의 인재를 양성하는 변화의 시작에 이 원장이 토대가 되어 준 셈이다.

김종석 청장은 후배들에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히딩크 말처럼 구체적 꿈을 가지고 있는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 묻는다. “성장은 현재의 생각을 뛰어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생각만으로는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행동이 수반되지 않은 비전은 단순한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보다 먼저 생각하고 주어진 일에 정직하다면 여러분 앞에 축복이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

이인기 원장은 전역 후 의료 사각지대인 ‘무주 의료원’을 설립하고, 종합병원에서 응급실 24시간 진료를 자청하는 등 의료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서기도 했다. 이후 정형외과 개원 생활을 10여년 이상을 하다가 현재는 청주의 마디사랑병원에서 정형외과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

이인기 (23기, 예대령) 마디사랑 병원

공사인의 자긍심이 만든 성공의 길



기도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뜰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아예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소원을 우리는 다 이루고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간절하게 바라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부자는 아니어도, 빼어난 외모는 아니어도,

그렇게 지혜롭지는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쉬운 방법은, 내일 할 일을 오늘하고
오늘 먹을 것은 내일 먹는 것이다.” - 탈무드

이준신

(명예 26기, 52기 모친)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보훈휴양원 원장



보훈휴양원은 국가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전물군경미망인회가 주축이 되어 미망인들을 위해 건립한 휴양시설이다. 휴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기복무 제대군인, 공무원, 일반인을 위해 객실을 배정하고 있다. 이곳 원장으로 이준신 여사가 지난해 2월부터 재직 중이다.

이준신 원장은 26기생인 박명렬 대위와 결혼해 아들과 딸을 두고 단란하게 살았다. 그러나 남편이 ‘팀스피리트’ 작전 중 비행사고로 순직하였다. 당시 4살이던 아들은 부친의 뒤를 이어 공사를 52기로 졸업하고 F-16 최신예기 전투조종사가 되었다. 안타깝게도 아들 역시 중위 때 서산 앞바다에서 야간비행 중에 순직하였다. 이후 이 원장은 생업을 꾸리기 위해 미용실 경영, 미용학원과 여성회관 강사를 하면서도 해외 봉사(파라과이)에 참여해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일도 잊지 않았다. 이후 더욱 정진하여 서라벌대학 겸임교수와 서라벌예전 교수, 뷰티 아카데미 강사 실장의 경력을 다져갔다. 경영대학원에서 뷰티 예술 경영학 석사를 취득한 이 원장은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 미용사 자격증 실기시험 감독위원이며, 대한미용장협회 서울지회 부회장, 전물군경미망인회 고양시 지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경기도지사 표창장과 유명 단체로부터 ‘장한 어머니상’을 받았고, 공군전우회장의 ‘자랑스러운 장한 어머니상’도 수상하였다.

남편과 아들이 지켜낸

나라 사랑을 이어간다

자상한 남편과의 짧았던 결혼생활

평소 (고)박명렬 소령은 ‘불구덩이를 매달고 공중을 향해 치솟고 내달리는 건, 우리의 숙명이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한다. 3년의 열애 끝에 결혼한 이 원장은 4년의 짧지만 행복한 결혼생활을 끝으로 남편과 영영 이별했다. 이 원장의 손에는 박 소령이 결혼 때 선물한 빨간색 루비 ‘피앙세 링’이 항상 끼여 있다. 남편이 하늘나라로 갔을 때, 아들은 불과 4살이었고 딸이 3살이었다.

“참 자상하고 가족에게 잘하는 남편이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짧게 살다 가려고 가족에게 평생 해줄 거 다 해주고 간 것 같다고요.”

아버지를 뒤이어 조종사 된 아들

남편의 순직 후 16년의 세월이 흐른 2000년. 아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겠다고 공군사관학교를 택했다. 가족들은 재수까지 해서 사관학교를 진학하겠다는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아들이 너무나 간절히 원하더라고요. 처음엔 공사에 가도 모두 조종사가 되는 건 아니니까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허락했어요. 하지만 막상 사관학교에 들어가더니 조종사가 되겠다고 하더군요. 운명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임관한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빨간 마후라’의 꿈을 이뤘다. 당시 아들은 “처음 조종간을 잡았을 때, 나는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버지만은 그 사실을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다 아들은 스물일곱의 나이로 순직했다. 이 원장은 또 한 번의 기구한 운명 앞에서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아빠와 아들이 이 세상에서 못다 한 부자지간의 정을 하늘나라에서 꼭 만나서 정답게 나눴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2000년부터 꾸준히 봉사를 해오고 있다.

‘호국부자의 묘’ 안장

부자조종사는 서울국립현충원에 나란히 안장됐다. 유가족의 청원을 국방부가 들어주어 아빠와 아들을 나란히 안장해 부자가 함께 영면하게 됐다. 현충원은 ‘호국부자의 묘’로 명명해 현판까지 세웠다. 또 유물전시관의 가장 넓은 자리를 택해 부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모교에서는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부자의 흉상이 제막됐다. 이 흉상은 국방 전문기자인 유용원 기자가 ‘한국국방안보포럼’ 등, 민간의 모금을 통해 기증한 것으로 2010년 국가보훈처로부터 현충 시설로 지정됐다. 부자의 흉상은 두 조종사의 모습과 전투기가 하나가 된 ‘기인동체(機人同體)’의 모습을 형상화해 만들었다. 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소설 <리턴 투 베이스(Return to Base, 기지로 귀환하라)>로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있다.

아들은 처음 조종간을 잡을 때 자신이 갈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만이 그 사실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 이준신 원장은 강한 아내였고 어머니였다

차인숙 소설가 (리턴 투 베이스 저자)

전무후무한 부자(父子)의 순직은 언론 보도로만 끝날 일이 결코 아니었다. 조종사의 진솔한 삶은 물론, 그 가족들의 면면을 그려내어 전 국민에게 알리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이며 어머니인 그녀의 심경을 국민 모두가 알아야 진정한 위로를 건네지 않겠는가, 하는 작은 소망도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부자조종사와 이 여사의 삶을 담은 다큐소설 <리턴 투 베이스>가 세상에 나왔고, 현충원에서 헌정식을 가졌다. 충주 보훈휴양원의 원장으로 재직 중인 이 원장을 만난 건 지난 초봄이었다. 싱그러움 향기를 뽐고 있던 매화보다 더욱 반가웠던 건 이 원장의 모습이었다. 맑은 임무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서 평

안을 읽을 수 있었다. 이 원장은 강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던 것이다. 그 모습은 나쁜만 아니라, 이 원장을 아는 모든 이들이 바라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때론 차 안에서 혹은 서쪽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혼자 목 놓아 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이 원장의 모습 그대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싶다. 곳곳이 그리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은 어쩔 수 없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또 다른 그녀들의 표상이 되기 때문이다. 봄기운이 감도는 충주 보훈휴양원 정원에 푸릇푸릇 청매화의 향기가 짙게 깔려 있었다. 거울을 이겨낸 매화꽃 향기, 그것은 바로 이준신 원장의 강한 의지와 닮아 있었다.

부자(父子) 조종사의 길

편집실

부친은 전투조종사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했으나 불의의 사고로 산화했고, 아들도 같은 길을 걷다가 매우 안타깝게도 같은 운명을 겪고 말았다. 이를 단순히 불행과 비련의 사례로만 볼 것인가. 왜 국가는 이들의 묘소를 서울시 동작동에 유일하게 나란히 마련해 주었으며, 유물전시관에는 제일 큰 방을 배정하고, 모교에는 부자의 흉상을 세워 놓은 것일까?

우리나라의 조종사는 언제든지 가장 먼저 적진으로 날아가야 하는 존재다. 그야말로 직업 이상의 위상이며 충분히 존경받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다. 그런 길에서 부친이 순직했는데, 그의 길이 아들에게 무섭다거나 원망스럽다거나 피하고 등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면 그런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또 그런 국민들이 있는 한 국가안보는 무의미해진다.

제2차대전 초기 영국에서는 항공기 성능과 조종사들의 미숙으로 출격은 곧 산화였다. 그런데 돌아오지 못하는 조종사의 자리에 들어가 조국을 구해야겠다는 젊은이들의 애국심 덕분에 조종사 지원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영국공군과 영국군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끝내는 독일공군력을 궤멸시키고 승리한 배경이 되었다. 두려움보다 가치 있는 그런 도전과 의기가 아들의 교훈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 정신이 성무인의 표상이 되어야 한다. ✈



천혜의 자연 속 고품격 힐링 스페이스

대관령의 아름다운 풍광과 최고급 라마다 호텔
브랜드가 보장하는 안락한 힐링 공간.
일상이 나만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되는 시간.



라마다호텔&스위트 강원평창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오목길 107
(횡계리 245-66)

올해 초 오픈한 최신식 호텔

올림픽 기념관을 마주 보는 오대산 국립공원 자락에 위치한 최신의 고급 명품 호텔 라
마다호텔&스위트 강원평창.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인체에 가장 이상적인 생체리
듬을 제공하는 해발 700m 고원의 천혜 환경에 위치한 프리미엄급 호텔로 손꼽힌다.

감각적인 스타일의 트렌디한 휴양시설

세계적인 라마다호텔 그룹의 등급 중, 최고 수준인 '스위트(4성급)'을 받았다. 특이하
고 멋진 외관에 어울리게 객실은 모두 복층구조로 되어 있어 프라이버시가 보호된다.
호텔동은 크기와 구조에 따라 6가지 타입 644호실, 별채인 빌라동은 20평형 34호실
등, 총 678호실로써 취향과 경제력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다. 룸에는 싱크대와 전자레
인지, 냉장고가 비치되어 간단한 조리가 가능하며, 장기투숙자를 위한 코인 세탁실도
구비하고 있다.

접근성 뛰어난 대도시 인접 지역

KTX로 서울역에서 진부역까지는 90분, 강릉역까지는 2시간 이내에 도착한다. 강릉역
에서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서울의 명동역과 종합운동장역에서 매일 출발하는 직행
버스(대원관광)는 호텔까지 2시간 30분이 소요된다. 자가용 운전할 때는 제2영동고
속도로로 대관령 I/C를 나오면 10분, 횡계리 시외버스정류장에서 10분 거리다. 호
텔은 강릉 시내로부터 30분 거리에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난 여행지이다.

다양하고 실속 있는 부대시설 완비

라마다호텔&스위트 강원평창은 휴식과 오락 및 힐링을 동시에 즐
길 수 있는 다목적형 위락시설을 갖추고 있다. 사우나 및 휘트니스
실,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준비 중인 힐링센터는 엔
타이징 시술과 즐기세포 치료의 전문 공간으로 시선을 끌고 있
다. 단체 연수나 세미나 등에 활용하기 좋은 품위 있는 컨벤션홀 및
연회장은 15~300석 규모로 갖춰져 있다.



3 룸(전체 복층구조)
4 컨벤션 홀(연회장)
5 사우나&헬스장
6 야외 바베큐장
7 야외수영장

최인근의 풍부한 관광지와 여가-레저시설

호텔 주변으로는 전망대와 둘레길(1~2시간용), 산속 호수인 '도암
호'가 있다. 스키장(알펜시아, 용평), 골프장(용평, 버치힐), 워터파
크 등 제휴로 할인 받을 수 있는 여가-레저시설도 충분하다. 계절별
축제인 송어잡이, 눈꽃 축제, 메밀꽃(이효석) 축제 개최 지역이기도
하다. 한우마을(식당), 허브나라, 국가대표 렌탈샵(스키, 보드 대여),
대관령 동물체험농장 등에서도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객실 이용료 (단체회원용)

객실 종류 (전체 복층형, 침대 형태)	면적(평)/투숙 인원 (기준~최대)	비수기 할인가		성수기 할인가	
		주 중	주 말	주 중	주 말
스탠다드(더블 or 트윈)	8 / 2~3	55,000	77,000	110,000	132,000
디럭스(더블 & 싱글)	10 / 3~4	77,000	99,000	120,000	165,000
프리미어(더블 & 더블)	12 / 3~4	99,000	120,000	165,000	198,000
빌라(더블 & 복층 더블)	20 / 4~6	250,000	300,000	300,000	350,000

- SVC & VAT 포함(기준 인원에 추가 시, 침구료 15,000원 추가)
- 부대시설(사우나 등) 할인을 30~50%
- 주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연휴, 기타 호텔에서 지정하는 일자
- 성수기 : 7월 15일~8월 15일, 12월 20일~익년 3월 1일

대관료 (단체회원용)

구 분	수용 인원	정 가		할인가(약 30%)		비 고
		4시간용	종일용	4시간용	종일용	
그랜드볼룸	300명	1,500,000	3,000,000	1,000,000	2,100,000	
샤르망	100명	700,000	1,000,000	500,000	700,000	o 빔프로젝트: 무료
차밍 - I	30명	500,000	800,000	350,000	550,000	o 노트북: 100,000
차밍 - II/III	15명	300,000	500,000	200,000	350,000	



부회장 박성보(공사 26기, 예-대령)

“군에서 받은 혜택에 보은(報恩)하기 위해
실비(實費)로써, 동료들을 위한 최고·최
상의 휴양지로 제공하겠습니다”

군의 휴양시설은 노후되고 수량도 부족해 현
역 간부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우리 호텔을 군의 휴양시설로써,
예비역과 병사에 이르기까지 파격적인 실비로
제공하는 혜택을 드리고자 ‘단체회원제’를 신
설하였습니다.

공사 총동창회와 공군 전우회는 이미 협약체
결로써 아래 표의 할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군복지단과도 제휴를 위한 예비심사에 합격
되어 본 심사만 남겨 두고 있고, 군인공제회와
예비역 단체들까지 등록시켜 혜택을 실질적으
로 누리도록 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약 방법 ‘단체회원’으로 홈페이지나 직통전
화로 신청. 인터넷 할인 불가.

홈페이지 검색창, ‘평창 라마다호텔&스위트’
www.pyeongchangramadahotel.com

직통전화 033-333-1000

1 호텔동(본청) 복층 전경
2 빌라동(별채) 전경



FREE

FREE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항공권 NO!

진에어는 수하물&기내식

다~무료!

다시 열린 지상 낙원, 진에어 매일 운항

보라카이

19:40	23:25
인천	보라카이 (칼리보)
05:55	00:25

위탁수하물 15kg 제공, 무료기내식 제공

감사했던
50년을 넘어
보답하고 싶은
50년을 향해

지난 50년,
함께 해주신 고객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칭찬의 기술

1 소유가 아닌 재능을 칭찬하라

“넥타이가 참 멋있다”보다, “역시 감각이 탁월하다”라고 칭찬하면 돈재도 천재가 된다.

2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라

“1등 했다면서요?”보다, “그동안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겠나”라고 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3 타고난 재능보다 의지를 칭찬하라

“머리 하나는 타고났어”보다, “당신의 성실성을 누가 따라가겠어”라고 상대의 혼을 자극하라.

4 나중보다는 지금 즉시 칭찬하라

“오늘은 옷이 더욱 멋지군요”라고 칭찬하라. 칭찬은 머리를 붙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안 된다.

5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 칭찬하라

별것 아닌 일에도 “음~”과 “와우~” 같은 감탄사를 크게 해보라. 생각보다도 큰 위력을 발휘한다.

6 애매하게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넥타이가 참 좋은데”보다, “색깔이 중후한 것이 가을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군요”가 훨씬 낫다.

7 사적으로 보다는 공개적으로 칭찬하라

칭찬할 때는 많은 자리가 좋다. 특히 장본인이 없을 때 남긴 칭찬은 호응 가치가 두 배 이상이다.

8 말로만 그치지 말고, 물질적인 보상으로 칭찬하라

칭찬을 언어적 수단에만 머물지 말고 물질적인 수단까지를 동원할 때, 명품 칭찬이 될 수 있다.

9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으로 칭찬하라

“참 좋으시겠어요”보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다 신바람이 나더라니까요”로 바꾸어 보라.

10 남을 칭찬하면서 가끔씩은 격조있게 자신도 칭찬하라

“이번엔 정말 훌륭했어. 정말 멋있었고 내가 잘했어”라고 스스로를 칭찬하라.

회원 기고



성무인의 이름으로...

공군사관학교에서 멋지게 비상하는 공군을 꿈꾸며 값진 젊은 시절을 보낸 성무인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피땀 어린 노력의 시간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성무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만나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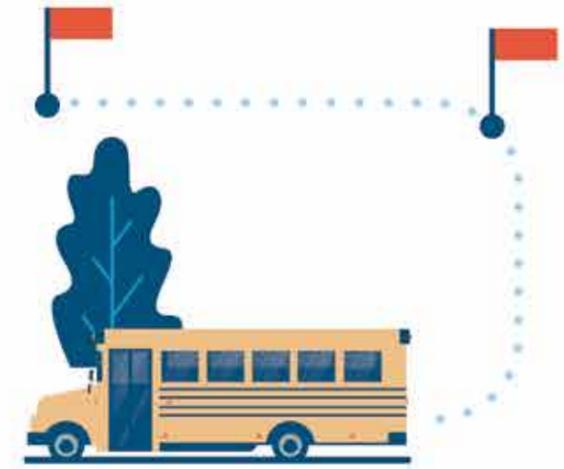


모교는 포근했고 행복했다

윤병인(세한대학교 항공대학장) _ 17기

공사 17생의 임관 50주년 기념행사가 5월 25일, 성무연병장에서 화려하게 열렸다. 모교가 청주로 이전 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던 나는 이날을 어린 시절 소풍 가는 날처럼 손꼽아 기다렸다. 동기생보다 일찍 전역한 뒤, 군 업무와 관련 없는 민간항공사와 대학교에 오래 근무했기에 임관 50주년의 기쁨을 배로 느끼고 싶어 일부러 아껴뒀는지도 모르겠다.

1965년 3월 2일 청운의 뜻을 품은 뜨거운 가슴으로 당시 서울 대방동 성무대에 입교해 조국 영공수호를 다짐했던 17기 생도들. 이들의 이마에는 어느새 주름이 깊게 패고 머리에는 하얀 눈이 내렸다. 보행이 불편해 지팡이를 드는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도 느껴졌다. 그러나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



친다”는 교훈을 마음에 새긴 모습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었다. 모교 사랑과 끈끈한 전우애만큼은 ‘언제나 청춘’인 우리는 후배들을 보며 임관했던 50년 전의 여러 모습이 영상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모교를 사랑하고픈 마음에 아들과 딸의 일정을 조정하고 손자 손녀까지 10여 명을 대동해 대절된 중형버스를 타고 행사 1시간 전에 도착했다.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의장대와 치어리더 시범 등, 식전행사에 흥이 돋았다. 식당에 입장하는 생도들은 질서정연하면서도 패기가 넘쳤고, 여생도로 인해 훨씬 다양하면서도 절도 있었다. 선배들을 축하하기 위해 연병장에서 선 그들의 늠름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은 50년 전의 나의 모습을 떠오르게 했다. 반세기 전 생도 생활을 통해 내 삶의 목표가 형성되었다. 무용(武勇)이라는 교훈 아래 호국의 간성으로 필요한 조국에 대한 국가관과 군인으로서의 사생관이 그것이다. 명예를 배웠던 곳에서 후배들을 만나니 감회가 남달랐다.

우리 17기들은 행사 시작 전, 적은 임관기수임에도 불구하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발전기금을 출연한 사실이 알려져 이목이 쏠렸다. 일천만 원 이상의 기증자가 너무 많아 감사패를 증정하는 학교장이 힘들어할 정도로 우리의 모교 사랑은 각별했다. 임관기념 해당 기수로 행사에 참석했던 27기, 37기, 47기, 57기뿐만 아니라 모든 후배 기수들에게 모범을 보였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다.

행사 중 인상 깊었던 것은 모두 걸어서 열병을 받은 것이었다. 군에 오래 몸담았던 동기생들은 열병과 분열을 많이 받아봤겠지만, 일찍 사회로 진출했던 나는 생전 처음 열병을 받았다. 어색해하며 보폭 맞추기에 급급해 어떻게 했는지 잘 생각나지 않지만, 생도들의 “받들어 총” 경례를 받을 때 울컥하는 느낌을 받았다.

마침내 우리 손자 손녀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에어쇼가 시작되었다. 파란 하늘을 볼 때 새가 되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싶다는 꿈을 Black Eagles가 대신 실행해 주었다. 태극기 문양, 하트에 화살까지 다양한 모양을 만들며 현란한 곡예비행을 연출했다. 우리나라가 직접 제작한 T-50기가 펼치는 20여분은 내가 공군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갖는데 충분한 시간이었다. 귀가하는 버스에서 손자와 손녀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오늘 아이들이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진 것 같다는 생각에 어깨가 으쓱해졌다. ✈

제복 입은 사람들

정창욱
(現 제이씨우드 컨설팅 대표) _ 43기



국가를 존속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임무와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지켜내는 무력을 다루는 군대의 역할이다. 모든 국가는 군대를 가장 중요한 국가조직으로 여기고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 왔다. 그러한 군대에서 복무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과는 다른 복장, 즉 제복을 입고 있다. 그리고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그 역할에 대해 당연히 우대하고 존중받아야 한다.

우선, 제복 입은 분들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국가, 군대, 국민 등 세 가지 요소가 삼위일체가 되어 하나의 기틀을 마련해야만 한다. 군인 같이 개인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임무를 수행하는 집단에 대해 기본적으로 물질적 지원과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강조하고 싶다.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사회적 존경의 의미와 분위기도 함께 조성해주어야 하는 책임이 국가에 있다. 개인에게 생명은 가장 소중한 가치이며 이는 무엇과도 바꾸기가 어려운 것이다. 국가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생명을 담보로 임무를 수행하는 공인집단을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두 번째로 군대의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군대가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스스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과거 안보가 위협받던 시절 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고 군이 보여준 각종 인사 비리와 방산 비리, 군납비리 등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암적인 일이다. 무엇보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은 방위사업임에도 북한을 압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에 열세하다는 우려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본연의 임무가 성실히 수행된다고 국민들이 느낄 때 비로소 국민이 존경과 신뢰를 보내줄 것이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전문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세 번째로 국민의 노력과 사랑이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중요함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모자라다. 하지만 국민의 중요한 삶을 지키기 위해 제복 입은 사람들이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현재의 시스템에 대해 국민들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이 군인이 아니라고 해서 국가의 안보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국민의 의식은 국가를 지켜내겠다는 의지와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와 제복 입은 사람들을 믿고 따르겠다는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일부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



현재의 심각한 안보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은 제복 입은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존중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제복 입은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신뢰와 존중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도 궁금하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상호 신뢰와 사랑을 듬뿍 주어야만 국가가 지속해서 유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늘 개인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임무를 수행하는 제복 입은 분들에게 대해 사회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뢰와 존중을 표해 주어야 할 때다. 제복 입은 사람들에게 대한 존중은 국민들이 위기에 처하거나 가장 위험할 때, 바로 그곳에 가장 빨리 도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것이다. 🇰🇷

성공하는 사람들의 10가지 특징

1. 묵묵하게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한다

현재 상태를 자랑하거나, 안주하지 않는다. 의미 없이 TV나 인터넷에 시간을 뺏기지 않는다. 대신 일에 몰입해 바쁘게 지낸다.

1 2

2.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늘 긍정의 말과 능동적인 행동을 한다. 조깅, 명상, 기도, 산책이 도움이 된다.

3. 목표가 뚜렷하다

사업 확장, 개인 성장 등 명확한 목표를 갖고, 정해진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4

4. 곁에 긍정적인 사람을 둔다

긍정과 부정의 사고는 주위로 퍼지게 마련이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을 피하고 대신 긍정의 사고를 가진 사람을 곁에 두어 긍정의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5.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완벽하게 좋은 때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대신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때야"라는 마음으로 '좋은 때'를 스스로 만든다.

5 6

6. 고민을 지나치게 하지 않는다

고민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없다. 지나친 고민에 매몰되는 것을 주의하고, 고민을 피하기보다 과감히 돌파하는 선택을 할 때가 많다.

7. 타인을 험담하거나, 자신에 대한 비난에 신경 쓰지 않는다

남을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등의 부정적인 생각을 피한다. 비난 받을 때도 무덤덤하게 넘기며 흔들리지 않는다.

7 8

8. 계획이 아닌 목표에 집중한다

행복한 결혼, 의미 있는 봉사 등 정해진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 반면 계획과 과정은 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획 자체에 매달리지 않는다.



9. 때로는 마음이 원하는 길을 간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고민할 때 머리보다 마음이 이끄는 데로 따른다.

10. 항상 실행한다

실패를 피하기 위해 가만히 앉아 머리로 계획만 하지 않는다. 행동으로 실천하며 확실하게 결론을 짓는다.



니 뭐하고 사노?

오종기_26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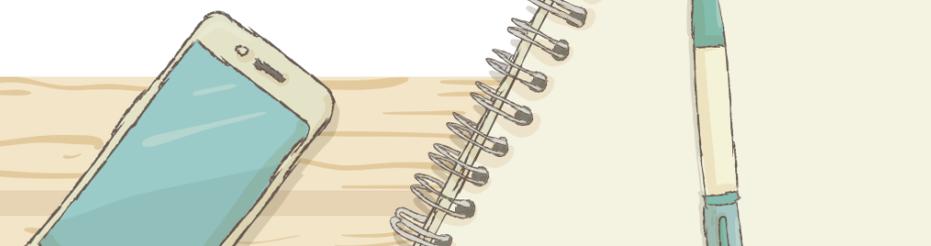
시간이 날 때 시골(안면도)을 다녀오곤 한다. 그 날도 등산백을 메고 고속버스 터미널을 서성이고 있었다. 뒤에서 툭 치며 "니, 뭐하고 사노?" 하는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 소리가 들려왔다. 같이 근무했던 인정 넘치는 선배님이셨다. 반가움과 함께 갑자기 할 말이 없었다.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니 많이 늙었구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다음에 한번 만나자고 약속하고 헤어졌다.

이 있었다. 어떤 분야든 보이지 않는 경쟁력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던 것이다. 말 못 할 좌절감과 그리는 제2의 삶 속에서 같등하게 되었다.

나이 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또 할 일과 어울릴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건강과 함께 보람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나는 청소년 진로체험 센터에서 진로 및 드론 지도, 보라매 수련원 항공동아리 지도, 탈북 청소년 사회적응 교육지원 등의 봉사활동을 하며 지내고 있다. 무엇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곳 시골에 작은 이동식 주택을 마련해 시간 날 때 마다 다녀오는 것이다. 각박한 도시의 삶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연의 소리와 멧은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라는 생각한다. 자연인이 되기도 하고, 농부가 되어 땀을 흘리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며 지낸다. 어느새 나만의 작은 공간에 도착해 밀짚 모자를 쓰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본다. 내가 꿈꾸는 건강한 삶, 후회 없는 삶. "과연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전역한 지 10년이 되어가는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전역하고 보니 막막함이 느껴졌다. 새로운 삶을 위해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자격증을 따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사회복지사, 예절지도사, 주례 자격증, 청소년 진로지도사, 인성교육 지도사, 드론강사 자격증 등을 획득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며 성취욕을 느꼈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할 기회를 갖기에는 어려움



은퇴(전역), 새로운 출발이다

백승웅_10기

갖 50세에 전역 후 올해 들어 30년 차에 접어들었다. 현역으로 복무했던 30년과 같은 연수이니, 그동안 사회로 복귀해 생활해온 시간이 예상롭지가 않다.

모든 사람에게 생의 주기가 유사하게 전개되지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은퇴라는 과정이다. 직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군에서의 전역은 은퇴와 비슷한 삶으로 진행되어 왔다. 은퇴에는 “Re-tire, Re-start”라는 단어가 회자된다. 마모된 차량의 바퀴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거나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직접 당면한 사람에게는 무척이나 당혹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

나는 현역 때에 만났던 사람들과의 인연이 교감해 제2의 인생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었다. 전역 때 소속감을 잃어버렸던 막연함과 직위를 상실했던 허탈감에 잠시 방황했으나, 새로운 직장(항공회사)을 가지면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후 군에서 익혀온 지식과 경험들을 바로 소속 회사에 적용, 기여하며 보람된 기간을 보낼 수 있었다. 대부분의 가장이 자녀의 학비 마련과 출가 지원까지를 인생 농번기라고 한다. 그 시기가 50~60대임을 고려해 볼 때, 내가 겪었던 50대는 참으로 행운이었고 감사한 시간이었다.

60대 초에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했다는 생각과 함께 보다 안정된 삶과 사회봉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 미래 희망인 젊은 대학생들을 지역 전문가로 양성시키는 단체(태평양 아시아협회)에 합류하게 되었다. 대

학생들과 중국, 몽고, 베트남, 태국, 필리핀, 대만, 러시아, 캄보디아 등지를 순회했다. 학생들이 방문한 나라 학생들과 상호교류하며 우호친선을 도모하고 국위를 선양하는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대학생들에게 비전과 도전, 성취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이웃 나라를 품고 나눔과 섬김으로 돕는 데 집중하는 조직 관리에 참여했다. 수년간의 해외 봉사활동은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일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돕고 받드는 자원봉사활동이라는 주장에 크게 공감하게 된 보람된 시간이었다.

60대 중반에 이르러 앞으로의 삶을 조망하며 80대 중반까지 계속 남을 돕는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대학원에서 복지 상담을 2년간 전공한 후, 수원의 우리나라 제1호 복지기관에 고문으로 취임했다. 어르신들과 가정, 자녀 건강, 인간관계, 신앙 등의 다양한 상담을 진행하며 많은 이야기에 공감하며 조언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우선 작은 그룹 활동을 통해 사진 촬영, 영화연극 감상, 악기연주 등 다양한 영역으로 생활을 넓힐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조정했다. 또 건전한 오락과 놀이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건강한 생활로 연결되게 하는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개인적인 특기와 전문지식을 발표하는 기회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게 해 각자의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삶의 우선과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고심해 본다면, 명예와 권위와 부를 추구해 가기에는 남은 시간이 부족하다. 진정한 삶의 자유는 내 마음을 비우는 데에서 얻을 수 있다. 내 생애에서 오늘이야말로 가장 젊고 생기가 넘치는 최고의 선물이다. 은퇴 이후에도 새로운 일을 계속해 갈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과 만남을 중요시하고, 인연을 소중하게 이어가야 한다. 자신을 관리하고 꿈과 비전을 새롭게 유지하는 한 젊음은 계속된다. 인생 역전의 드라마는 날마다 반복되고 있다. 은퇴에 위축되거나 기죽지 말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결의를 다짐하자. 인생의 태양은 늘 새롭게 떠오른다. ☀



봉우회는 남다르다

이문호_17기

나는 공사 17기생인 것이 자랑스럽다. 내 삶에서 잘 선택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많은 선후배가 17기는 남다르다고 말한다. 우리 동기생이 전역 후, 어떻게 활동하기에 남다르다고 하는지 임관 50주년을 맞아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정리하였다.

우리는 삼군사관학교 중, 최초로 전 과목을 평가하는 입시 형태에서 일반대학과 같이 선택과목으로 입학시험을 치렀다. 영화 <빨간 마후라>가 흥행하면서 그 영향으로 경쟁률이 올라가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왔다고도 한다. 그래서일까. 17기는 개인주의로 모래알 같아 단합을 못한다면서 기합을 많이 받았다. 특별하게 개인행동을 한 것 같지 않는데 선배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쳤는지, 선입견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공사총동창회 운영을 통해 동기생애가 굳게 다져졌다. 사전에 총동창회 운영기금을 준비 못하다가 단기간에 8천만 원의 총동창회 운영기금을 모았다. 창군 이래 6.25전쟁 시 전사한 20명을 포함해서 임무 중 공중에서 산화한 333명의 조종사와 45명의 동승근무자의 이름을 일일이 새긴 추모비 ‘영원의 빛’을 전 동문이 참여한 가운데 세웠다. 동문들과 배우자들의 사망 시, 동문들에게 전파하는 시스템 만든 것도 자랑스럽다. 공사총동창회 운영을 통해 얻은 이러한 놀라운 성과들 중 가장 값진 성과는 동기생간의 단합이다. 동창회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부터 매월 2~3회의 골프, 등산, 바둑을 두며 15명 이상이 늘 함께하고 있다. 매년 초복에는 등산, 가을에는 1박 2일 천렵이나 여행을 함께 한다. 메추리 시절 우리를 정성껏 지도했던 14기 선배님들과 함께 등산한 후 회식한 것이 계기가 되어, 선배님들이 우리를 초청하는 행사를 5회에 걸쳐 교대로 실시하며 끈끈한 정을 이어오는 것도 우리가 만든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우리 동기들은 향후 공군의 발전을 위해 논리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에 공군이 배출한 예비역 석·박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공군발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공군발전협회에 항공우주전력연구원을 두고 후배들을 독려하여 미력이나마 공군의 싱크 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당시 공군전우회 회장은 이와 같은 노력을 평가해 17기 사관들에게 올바른 국방개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하고 격려한 바 있다. 또한 방사청은 공군이 추진한 차기전투기 사업에 5세대 스텔스전투기를 배제하고, 가격이 싸다는 경제적 이유만으로 종합평가도 하기 전에 한국을 위해 개발계획만 있고 생산한 적이 없는 F-15SE를 단일기종으로 선정하고 추진하였다. 많은 논란 속에 공군이 추진했던 스텔스기인 F-35A가 태극기를 달고 조국의 영공을 수호하는 데 결정적인 힘을 보탠 것도 우리 기생이었다.

임관 50주년에 21명이 1천만 원씩 출연하고 함께 활동하는 51명 중 43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총 2억7천4백5십만 원의 모교 발전기금을 출연했다. 사관학교 발전기금에 거부감이 있으면, 임무 중 공중에서 순직한 자녀들의 장학사업인 ‘하늘사랑 장학회’에 출연하자고 부탁했다. (고)유정웅 동기생의 부인 등, 동기생 거의 절반이 각자 1천만 원씩을 출연했고 자발적으로 자기 형편에 맞게 43명이 참여해 출연하였다. 후배 기수들이 부담된다고도 말하지만 그럴 때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 적금 들고 약정해 기간을 정해 출연하면 부담이 없다고 말해주는 한다. 임관 50주년 준비 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동기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

‘보라매상’ 수상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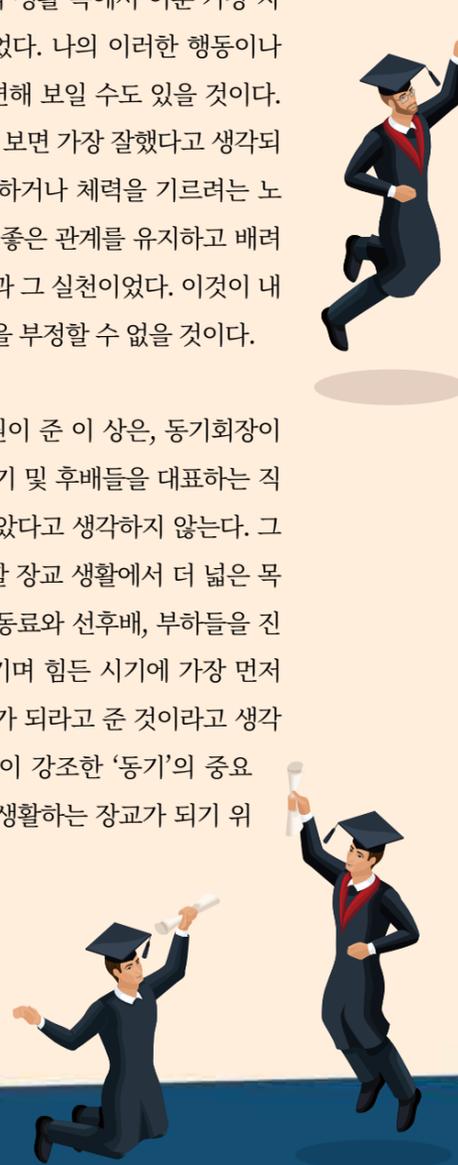
정승현_67기

보라매상 수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지금까지 생도 생활을 하며 어떠한 점이 나를 ‘성무 보라매’로 만들었는지 돌이켜보았다. 그 정답은 ‘동기생’이었다. 많은 선배가 군 생활을 오래 해본 결과, 가장 소중한 것은 동기라는 말을 많이 해주었다. 3학년 동기회장을 맡았던 시절이다. 공수훈련에서 온종일 땀병에서 체조하고 PLF를 하며 지친 몸으로 생도대에 돌아오는 나를 기다리는 것은 꿀맛 같은 휴식이 아닌 처리해야 할 크고 작은 업무였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내 시간과 편의를 희생해 동기들이 조금이라도 더 쉴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자정 넘어서까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발 벗고 뛰어다니던 기억이 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고, ‘티도 안 나는데 사서 고생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언젠가 동기들이 내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나 자신을 바쳐 동기들을 섬기려고 노력했다.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가 아닌, 동기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가져야 할 책임감을 기르기 위해서였다.

그래서였는지 동기들은 힘든 훈련 기간에 오가며 마주칠 때 사소하지만 내게는 절대 작지 않았던 힘이 되는 말들을 많이 해주었다. 이것이 내

가 초심을 잃지 않고 동기회장직을 잘 마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한다. 또 동기회장 임기 동안 스스로 세웠던 ‘어떤 상황에서도 동기들에게는 화를 내지 않겠다’는 목표 또한 달성할 수 있었고, 이는 4년간의 생활 속에서 이룬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이 되었다. 나의 이러한 행동이나 목표가 우습거나 미련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4년을 돌이켜 보면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학업에 정진하거나 체력을 기르려는 노력이 아닌, 동기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배려하기 위해 했던 고민과 그 실천이었다. 이것이 내게 큰 자산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동기들과 훈육 요원이 준 이 상은, 동기회장이나 전대장생도 등 동기 및 후배들을 대표하는 직책을 잘 수행해서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보다는 앞으로 시작할 장교 생활에서 더 넓은 목표와 포부를 가지고 동료와 선후배, 부하들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섬기며 힘든 시기에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는 존재가 되라고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배들이 수없이 강조한 ‘동기’의 중요성을 항상 기억하고 생활하는 장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



수석 졸업 소감

김도희_67기



한국전쟁 참전용사이신 할아버지께서는 내게 항상 “강하게 크라.”라고 말씀하셨다.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릴 때부터 내 꿈은 ‘직업군인’이었다. 장래 희망으로 활동적이면서도, 한번 사는 인생인데 나라에 헌신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꿈은 조종사로 점점 구체화되었다. 여성이 군인의 신분으로 조종사가 될 수 있는 길은 공군사관학교 진학밖에 없었기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공사 입학의 목표로 했다. 고3 때 66기 선발시험에서 떨어지고 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에 합격하였으나, 군인의 꿈을 포기할 수 없어 재수를 선택했다. 그리고 기어코 사관학교에 입교해 이렇게 4년의 생도 생활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었다.

누군가의 강요도 아니었고 내가 진정으로 원해서 택한 길이었기에 나에게 생도 생활은 하루하루가 소중했다. 특히 3군 통합교육 때, 동기 회장을 하면서 알게 된 동기들과는 매년 국군의 날 행사 때에 만나고 지금도 연락을 하며 우정을 쌓고, 해외 견학으로 방문한 프랑스 공군사관학교에서의 경험들은 나의 견문을 한층 넓혀 주었다. 보좌관 근무를 서면서 학교를 위해 일할 때, 잘 보이지는 않더라도 우리를 위한 모든 일은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임

을 알았고 책임감에 대해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되돌아 생각해보면 성취감에 뿌듯했던 적도 있었고, 내가 하지 않은 선택에 아쉬움도 더러 있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매 순간이 나에게 피와 살이 되는 중요한 경험들이었고 어느 하나 버릴 것은 없었다. 물론,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나 혼자 힘으로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4년 동안 동고동락한 ‘늘해랑’ 67기 동기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준 선배들과 이제 우리 뒤를 이을 후배들. 우리를 군인으로 만들고 장교로 가르치기 위해 힘써 교육 해주신 교장님을 비롯한 훈육 요원 분들과 교수님. 그리고 첫 공사 선발시험에서 떨어졌지만, 당신 딸이 하고 싶은 일하기에 전적으로 믿어주고 지원해주신 무엇보다 지금의 건강하고 튼튼한 나로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

이젠 내가 받은 것들을 나라를 위해 바쳐야 할 때이다.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국가에 충성하고 헌신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장교가 되는 것이다. 이제 성무대 언덕의 메추리는 푸른 하늘의 보라매가 되려는 첫 발걸음을 내디딘다. ✎





아, 韓國은 무서운 나라!

한다 하면 이뤄내는
불굴의 의지로
짧은 시간에 놀라운
발전을 이뤄낸 대한민국.
그 무섭고 신비스러운
힘을 엿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몇몇 단면을 살폈다.

첫째, 군인. 잘 먹고 잘사는 재벌 아들부터 정치인과 연예인은 물론이요, 힘 잘 쓰는 프로 운동선수들조차 줄줄이 떨어지는 그 어려운 '징병검사'를 가뿐이 통과한 60만의 '초정예군'을 가진 무서운 나라다.

둘째, 음주. 고급 양주인 스카치위스키는 스코틀랜드가 주산지이지만, 최대 소비국은 한국이다. 한국인은 예로부터 막걸리를 큰 대접으로 마셔왔다. 양주라고 다를 수 없다! 영국 술집에서 한국인이 위스키 한 병을 주문하면 난리가 난다. 잔으로는 팔아 봤어도 병으로는 팔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숨도 돌리지 않고 가볍게 병을 비우면 술집 안이 뒤집어진다. 여기에 한 병을 더 추가하면 기절한다. 서비스로 폭탄주 시범까지 보이면 다음날 현지 신문에 난다. 요즘엔 영국에서 폭탄주 제조요령이 상식이 되고 있단다.

셋째, 컴퓨터. 휴대폰은 아직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봐 연일 광고를 때려댄다. 꼬마들도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완벽한 IT 왕국이다. 스타크래프트는 쌈장 아니라도 1위는 변함없다. 프로게이머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최강 한국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한, 더구나 전투게임이 아닌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이 전투게임에서 질수야 없는 일이 아닌가!

넷째, 남자. 조폭, 특공대출신, 해병대출신, 사복형사 심지어는 특공 공익(전경) 들까지 넘쳐나는 곳이 한국이다. 걸만 보고 엉기다가는 죽는다. 할아버지들도 왕년에는 한칼씩 했지만, 오히려 어릴수록 조심해야 한다. 아저씨들은 대(大)딩을, 대딩은 고(高)딩을, 고딩은 중(中)딩을 경계한다. 언제나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산다.

다섯째, 아줌마. 뽀글뽀글 파마머리나 몸빠라는 전투적인 스타일을 갖춘 아줌마들은 특히 무섭다. 특정한 장소, 버스나 전철 안, 시장이나 마트 같은 곳에서는 거의 초인적인 힘을 자랑한다. 이런 곳에서는 절대 피해야 산다. 예비 아줌마로 불리는 젊은 처자들도 무섭기로는 만만찮다. 회사 다니는 아가씨들은 핸드백 안에 라이터나 가스총을 넣어 다니고, 무장한 은행강도조차도 여자 행원에게 직싸게 얻어터지고 붙잡혀 철창으로 간다. 중고딩 여학생들은 종아리털 관리를 위해 언제나 가방에 면도칼을 넣어 다닌다.

여섯째, 운전. 막혀서 못 달릴 뿐이다. 조금만 길이 뚫리면 모두 눈이 풀리고 늑대인간으로 변신한 뒤 액셀을 밟아 댄다. 앞뒤로 5cm 빈틈만 보이면 끼어들기가 가능하며, 자신을 추월하는 자동차가 있으면 바로 쫓아가 샅대질하고 그것도 안 되면 하이빔을 날려 제압하거나, 앞을 가로막고 지그재그로 방해운전을 하는 고수도 널렸다. 모터사이클은 앞바퀴가 떨어져 나가도 뒷바퀴만으로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달릴 수 있으며, 뒤에 조수(주로 여자)를 태우면 더 빠르다. 조수 대신 한 손에 "청룡각" "신속배달" 등이 써진 철제통을 들면 전투력은 더욱 높아져 차들 사이를 뚫고 달리는 특수기동도 가능해진다. 🚗

최강 공군을 향한 꿈! Atec, Inc.가 함께 합니다.

Atec, Inc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분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Atec 
Atec, Inc. | www.atec.com

12600 Executive Drive, Stafford, TX 77477
Tel 281.276.2700 Fax 281.240.2682

한국대리점

CHINDIA
TECH CO., LTD.

신디아테크주
www.chindiatech.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22 905호
Tel 02.3775.3434 Fax 02.3775.3424



ASIANA 350

미서부 3개도시 매일 운항



모든 게 가능한 자유로움
LOS ANGELES

매 순간 색다른 매력
SAN FRANCISCO

대자연의 여유로움
SEATTLE



• 기내 Wi-Fi
• 쾌적한 기내환경 [공기순환/기압/습도개선]

• 더 넓은 이코노미 스마티움
• Full LED 무드라이트



국방 IT 전문기업 군인공제회 C&C가 함께합니다.



<http://www.mmaacnc.or.kr>

예약 및 문의 1800-8100
flyairseoul.com

넌은 좌석
새 비행기



AIR SEOUL

에어서울만의 특별함

- 점인 항공기**
평균기령 4.8년
AIRBUS 321-200
- 여유로운 좌석공간**
앞뒤간격 32인치 타사 대비
최대 76mm 이상 넓은 간격
- 개인 모니터**
개인별 기내 모니터로
즐거운 비행시간

AIR SEOUL

공군회관 SKY컨벤션센터

높고 웅장한 고품격 예식장(3층 그랜드볼룸)

당신이 가장 명예롭게 빛나는 곳,
고객 감동으로 보답하는 공군회관입니다.



웨딩(자녀결혼) · 단체행사 · 가족모임 · 동창회 · 송년회 · 각종 소연회

(일반인 예식 가능)

군 현역·예비역
우대



예약문의
02.844.0336



우정 기고



성무인들의 곁에는 항상 마음으로 응원해주는 좋은 인연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보라매로 성장해 국민과 나라를 위해 활약하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는 이들과 공사와의 아름다운 인연을 소중히 이어가는 벗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아쉬운 석별, 그리고 뜨거운 재회

홍순택_ 명예 26기

현재 충남대학교 식품공학과에서 교수로 봉직 중인 나에게도 공군사관학교와의 각별한 인연이 있다. 40여년 세월이 훌쩍 흘렀지만, 1974년 2월 1일 겨울의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성무대 언덕을 넘던 그날 입교식, 관악산 돌파훈련, 그리고 그해 12월 퇴교할 때까지 이어진 수개월 동안의 사관학교 메추리 생활! 내 인생에서 겨우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담겼던 사건(?)들이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또 잊혀서도 안 되는 매우 충격적이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그 이후로 생도일 때의 짧은 기억은 정신적 측면에서 삶의 기준으로서 나의 인생을 지배해 왔다.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꿈을 이뤄 줄 공사 26기 합격증을 등기로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후 공사에 진학해 나름대로 순항하던 중 때때로 건강 문제가 나를 괴롭혔다. 어느 봄날, 구보 중에 복부 쪽에 이상을 느꼈다. 가벼운 통증이었으나 매 구보 시간마다 통증은 점차 심해졌고 결국 의무대에 입원했다. 마음이 다소 무거워진 상태로 여름휴가를 떠났다. 다시 씩씩한 마음으로 2학기에 접어들

었다. 그러나 10월 어느 날, 구보 중에 그 통증이 다시 찾아왔다. 어떻게 하나? 다시 열흘 정도 입원하고 나니 이제는 마음이 약해진다. 내가 생도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 길 말고도 다른 길도 있을 텐데... 퇴원 후, 편대장님과 면담을 했다. 이렇게 나의 생도 생활은 슬프게 끝을 맺었다. 그러나 이런 맺음이 깊은 후회와 진한 아쉬움, 그리고 꿈속의 그리움으로 나의 인생을 지배할 줄은 정말 몰랐다.

이후 사관학교 생도가 아닌 민간인으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갔다.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중견 식품회사 연구원으로 지내왔다. 하지만 이것은 내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도 한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 생도였는데, 이대로 평범한 회사원(?)으로 지내는 것은 불만스러웠다. 비록 사관학교는 퇴교했지만, 그 당시 체득했던 ‘명예’와 ‘금지’를 되살리고 싶었다. 새롭게 선택한 길은 해외 유학이었다. 과감히 회사를 휴직하고 가족을 뒤로 한 채 35세의 늦은 나이에 영국 유학길에 올랐고, 식품과학과 박사학위 과정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약 2년 정도가 지났을까 큰 고비가 찾아왔다. 끝없이 계속되는 과중한 학업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감당키 어려웠다. 어려운 공부를 따라가려 하니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이 들었다. 인내력이 한계에 도달했다. 짐을 싸기로 마음먹었다. 내일 아침이면 지도교수를 만나 집에 돌아간다고 말하리라. 괴로운 저녁 시간이 흘러가고 자는 등 마는 등 어두움이 거치고 아침이 왔다. 밝은 햇살이 내 방의 창문에 흠뻑 젖어 있었다. 내 여행 가방이 방 한구석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내 마음에 한 소리가 있었다.

“홍순택! 너는 네가 선택한 길을 또 버리려 하느냐? 그러면 정말 인생의 실패자가 될지도 모른다. 사관학교 퇴교의 쓴 교훈을 잊었는가? 비록 민간인 신분이지만 네 마음은 사관학교 생도가 아닌가? 어려운 생도 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그 인내심은 어디로 갔는가? 다시 불명예스럽게 네가 선택한 길을 버리려 하는가?”

천둥소리가 내 머리에서 났다. 불명예 퇴교!!! 정신이 번쩍 났다. 짧은 시간에 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잠시 후 따사로운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추는 것을 느꼈다. 힘이 솟았다. 다시 일어날 용기가 불일 듯 일어났다. 2번은 퇴교할 수 없다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고비를 넘기고 4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가족에게 감사하고, 나 자신도 매우 대견하게 생각되었다. 결국 어려운 공부를 잘 마치고 맺음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사관학교에 대한 기억, 그중에서 다시 도중에 그만두는 불명예스러운 길을 갈 수 없다는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되었다.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 감사하게도 배려에 힘입어 명예 졸업장을 받았다. 이제는 동기생과 여러 모임에 참여하여 그동안 못다한 정을 나누고 있지만, 나의 사관학교에 대한 기억은 1학년 생활이 전부이다. 부족한 홍순택을 동기생으로 또한 공군사관학교 명예 졸업생으로 인정해 주어 매우 감사하다. ✈





함자 테하미 _ 65기, 알제리

기다리고 기다리던 졸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4년 전 모르는 나라에 와서 익숙하지 않은 문화 속에서 생도 생활을 시작했다. 개인적으로 동기들과 함께 힘든 교육과 강한 훈련을 무사히 마치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 수탁생도들은 누구보다도 고생했고 자신이 부족했던 언어와 문화까지 극복했다. 그 길고도 짧았던 생도생활의 끝자락에서 생활, 군사훈련과 학업에 대해 개인생각과 소감을 적어보았다.

첫째 나는 수탁생도로서 4년간의 생도생활에서 많은 유익함과 경험을 얻었다. 1, 2학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생활 스트레스와 선후배 문화를 경험하면서 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내심과 양심을 배웠다. 3학년이 되면서 언어에 대한 약점이 사라졌고, 스스로 일과 및 말은 바 임무를 열심히 할 수 있었다. 무슬림으로 특별한 생활을 했던 나는 음식과 생활 문화가 달라 다른 생도들과 같이 일과를 진행하는 것이 힘들었다. 음식을 잘 못 먹어서 회식자리도 자제하고 선후배와 친해질 기회가 부족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공군사관학교 외국 수탁생 졸업 소감

둘째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정말 만족한다. 동기들과 함께 땀 흘리면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 훈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교훈이다. 한국 사관학교에 입교 전 알제리에서 받은 군사훈련과는 다른 시스템과 훈련을 이곳 사관학교에서 경험했다. 한국은 비상대기 중인 나라이기에 훈련과 군인으로서의 대기태세를 강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사관학교에서 배운 기본적인 군사훈련과 태도는 앞으로의 군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격, 행군, 공수, 관속비행 등 다양한 훈련을 받았다. 그중 무엇보다도 체력을 압도적으로 압박해 길러주는 방법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생도 생활 중 가장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교육 과정은 학업이었다. 나는 알제리 국방부의 지시대로 항공우주공학과를 선택했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교육수준이 우수하기 때문에 외국군인 나로서는 적응이 상당히 어려웠다.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학업 일과도 바빠지고 더 어려워졌다. 그러기에 무사히 4학년 2학기 기말시험을 마쳤을 때 너무 뿌듯했다. 나중에 장교로 임관해도 제 2의 고향 대한민국은 절대 잊지 않을 것이고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공사 65기로 입학한 4명의 외국군 수탁생도들. 왼쪽부터 함자(알제리), 사폰다나이(태국), 바트볼드(몽골), 호안(베트남) 생도

공군사관학교 외국 수탁생 현황

국가	수탁생 인원	기수
태국	22	45 ~ 67기 (년 1명)
터키	1	63기
일본	16	52 ~ 68기 (년 약 1명, 1년간 수탁 교육)
몽골	5	63 ~ 67기
필리핀	3	63 ~ 67기
베트남	4	64 ~ 67기
알제리	1	65기

공군사관학교에서 졸업한 외국 수탁생은 누적하여 7개 국가 52명이며, 이들이 자신들의 모국에서 한국과 한국공군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싸남텡 빠딘야 _ 67기, 태국

영원히 머물 줄 알았던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 졸업식을 준비하러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을 떠난다는 생각에 울컥했다. 졸업식이라는 단어가 너무 생소해서 ‘과연 졸업한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도 했다. 그럴 정도로 졸업이라는 것이 참 어색하고 실감이 나지 않았다.

4년 동안 한국 공군사관학교에 다니며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추억도 쌓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힘든 기억들도 있다. 기본군사훈련 때 한국말을 너무 못해 많이 답답했다. 과정을 포기할 뻔했을 때 태국인 선배들이 위로해줘서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2학년 때는 1학년 때와는 달리 생활면에서는 많이 나아졌지만, 한국말과 공부가 너무 어려웠다. 교수님들이 우리 수탁생도들에게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그때는 ‘우리는 한국에서 2년밖에 안 배웠는데 한국 생도와 똑같이 과제하고 평가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 한국인이 아니고 한국말을 못하는 외국



공군사관학교 태국 및 필리핀 수탁 생도

생도들에게 공군사관학교가 앞으로도 한국 생도와 똑같이 대한다면 후배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나는 다행히 이곳에서 좋은 선후배와 동기들을 많이 만났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4년간의 생도 생활을 무사히 마치지 못했을 것이다. 도와주신 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졸업이라고 하니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아쉬움이 들기도 한다. 더 많이 노력하고 동기들과 더 많이 시간 보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모두의 믿음과 사랑을 마음에 소중히 안고 갈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발짝 내디딘다. ✈️

삶에 지친 당신에게

1. 나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2.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한 땅이 된다.
3. 인생에서 가장 슬픈 세 가지는 "할 수 있었는데, 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이다.
4. 같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새로운 실수는 두려워하지 마라. 실수는 곧 경험이다.
5. 오늘은 당신의 남은 인생 중, 첫 번째 날이자 마지막 날이다.
6. 인생은 곱셈이다. 어떤 기회가 적도 내기 제로(0)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7.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실망을 친구로 삼을지, 희망을 친구로 삼을지에 인생이 달려있다.
8.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9. 슬픔이 밀려와 소중한 것을 휩쓸어 버리면 이렇게 큰소리로 외쳐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다시 시작하는 용기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이 더 쉽게 일어난다.
 살다 보면 넘어질 일들이 더 자주 생길지도 모른다.
 이때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릴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그냥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다시 일어나야 한다.
 넘어진 그 자리가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넘어진 그 자리가, 포기하고 싶었던 그 자리가
 새로 시작할 자리이다.
 시작만 한다면 모든 게 가능하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는 당신을 격려합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스르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눈앞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환한 얼굴로 인터뷰를 위해 찾아온 공사 선배들을 맞이했다. 선배를 향한 최상의 예의와 격식을 갖춘 환대에 기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난 20년간 인터뷰를 위해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지만, 엘리베이터 앞까지 마중을 나와 극진한 예우로 맞아주는 경우는 없었다. 김도호 군인공제회 이사장과 서철모 화성시장은 바쁜 행정에도 인터뷰와 만찬 및 오찬을 위한 시간을 통해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 끈끈해지는 공군사관학교의 선후배 사이의 정과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예의가 느껴졌다.

공군사관학교의 이름으로 인생의 가장 귀중한 한 때를 함께 보낸 시간이, 나라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든든한 한 명의 군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한 노력과 시련의 시간을 서로 다독였던 공감이 성무인들을 강하게 맺어주었으리라.

‘화제의 동창’ 인터뷰에서 만난 다른 성무인들과의 만남도 인상 깊었다. 인터뷰를 위해 사람을 만나 보면 상대에게서 전해지는 에너지나 인상을 느낄 수 있다. 한 순간 잘 보이기 위해 꾸며내는 것이 아닌 인생을 살아오며 오랜 시간 축적된 시간이 만들어낸 힘이 자연스레 배어 나온다.

성무인들에게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긍정의 에너지와 군인 특유의 추진력이 느껴졌다. 그들의 삶은 흐르는 세월에 몸을 맡기고 목적 없이 흘러가는 삶이 아니었다. 인생에서 꼭 이루어야 할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위해 몸으로 열심히 실천하고, 정진하는 삶이었다. 그 와중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기보다 타인을 배려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자세가 우선이었다. 주위의 시기질투와 중상모략에도 휘둘리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워보였다.

조종사 순직에 대한 이야기는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비행기가 추락하는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의 목숨이 아닌, 민가를 피하여 국민의 안전을 선택한 결과라는 사실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송고한 희생으로 오늘도 열심히 자신의 자리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성무인, 그리고 그들의 삶의 가치를 세워준 공군사관학교에게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 ✈

삶의 가치를 되물게 한

성무인들과의 만남

박미진 기자



최강 불변의 공군 써포터즈 공학모(공사 학부모회)

서성복_합창단 단무장

“카파츠-그린나래”는 자녀들이 공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임관한 부모들의 모임인 공군사관학교 학부모회(약칭, 공학모)다. ‘카파츠-그린나래’의 ‘KAPATS(카파츠)’는 ‘Korea Air Force Academy(공군사관학교)+PARENTS(학부모)’를 뜻하며, ‘그린나래’는 공군상징이기도 한 그린 듯이 아름다운 날개로 비상하라는 순우리말이다. 이름에 걸맞게 자녀 모두가 대한민국 공군의 주축으로서 조국 영공방위를 수호하기 위해 하늘을 일터요, 싸움터 삼아 목숨 바쳐 살아간다는 명예롭고 절실한 공감대를 지닌 부모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해 5월 전국의 약 1,400여명 회원 중 뜻있는 부모들이 모여 합창단을 구성했다. 이제 갓 1년이 지난 ‘메추리’로 58기부터 70기 부모님들로 구성되어 있다. 단원들은 현재 공직이나 전문직 및 기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현업에 종사 중이다. 50대 중·후반이다 보니 대부분 현업에서 중요하고 바쁜 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금요일 저녁 연습 시간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모여 연습하고 있다. 순수한 아마추어 합창단이지만 유지하는 데 지휘자, 반주자, 악보, 합창 연습장 등 적지 않은 운영경비가 매달 들어간다. 이 모든 경비를 단원들이 스스로 내는 월회비로 운영하고 있다.

사람들은 “초·중·고교도 아닌 사관학교 생도들에게 무슨 학부모 모임이나?”라며 이상하게 생각한다. 대부분의 부모가 사관학교는 4년의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졸업해 소위로 임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막상 자녀가 사관학교에 입학해 기본군사훈련과 생도 생활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니 졸업과 임관이라는 문을 나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슬한 위기를 겪는지 알게 된다.



지난 5월에 가진 창단 1주년 기념 공연 “하나 된 열정 & 더 큰 울림”

임관 후에도 자기 분야에서 긴 시간 동안 체력과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걸 보면서 자녀가 재학과 재직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나누자는 공감대를 같이 하는 부모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공학모’다. 공학모의 슬로건은 “절대 학교에 간섭하지 말고, 조용히 음지에서 생도졸업과 임관 생활 뒷바라지만 하자”다. 생도들이 무사히 졸업하고 직업군인 생활을 잘하는데 부모들이 조력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공학모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러한 고마움이 자연스럽게 나눔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공군사관학교에 자녀가 들어갔다는 인연 하나만으로 나이 들어 뒤늦게 만난 합창단의 부모들. 다른 어떤 친목모임이나 동창모임과는 다르게 신기하리만큼 끈끈한 정과 강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사회에서 인사받는데 익숙한 분들이고, 자기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정상의 위치에 계신 분도 많다. 하지만 모임에 오면 자식의 기수에 같이 동질화(?)되어 버린다. 선배생도 기수 부모한테 배우는 자세로 겸손해지고, 무사히 졸업과 임관시킨 부모에게 비결과 돌봄에 대한 노하우를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경청하게 된다.

창단 발표회를 하며 본격적으로 자리잡아가는 ‘카파츠-그린나래 합창단’. 창단목적에 맞도록 앞으로 그 지평을 넓혀서 본격적으로 공군 행사나 공사, 또는 공사 유관단체와 관련된 일에 대해 지원활동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도 해나갈 예정이다. 공군 가족의 일원으로 공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공학모’의 봉사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불러주고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 7월 5일에는 여의도 KBS홀에서 열리는 공군 창군 70주년 정기 음악회의 무대에도 올랐다. 자식을 공군에 바친 ‘공학모(카파츠-그린나래)’는 누구보다 나라와 공군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높다고 자부할 수 있다. ✈

여자가 되고 싶은 남편



어느 날 남편은 자신은 매일 출근하여 고생하는데, 아내는 집에서 빈둥대는 것만 같아 어떻게 지내는지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빌었다.

“주여, 저는 매일 8시간이나 열심히 일하는데, 집사람은 집에만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출근해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를 마누라가 알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꼭 하루만 서로의 육체를 바꿔서 지내게 해 주십시오.”

이를 딱하게 여긴 하나님은 그 남편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다음 날 아침에 남편은 여자가 되어 아내의 하루를 시작했다. 일어나자마자 밥을 짓고 애들을 깨우고, 옷을 챙겨 입힌 뒤 밥을 먹인 다음 학교에 보냈다. 이어 남편을 출근시킨 뒤에는 세탁기를 돌리고, 쓸고 닦으며 집 안을 청소했다. 반려견의 밥을 챙기고 목욕시킨 다음 청구서를 결제하기 위해 은행에 가서 일을 보았다. 오는 길에 장을 봐서 집에 돌아오니 벌써 오후 1시가 넘었다. 그제야 대충 ‘아점(아침&점심 겸식)’ 먹은 다음 빨래를 널고,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먹을 간식을 준비한 뒤 애들을 기다리며 다림질을 했다. 조금 후 애들이 돌아온 뒤에는 간식을 먹이고, 숙제하라고 실랑이를 벌였다. 잠시 TV를 보며 숨을 돌리니 벌써 오후 4시 30분 저녁 시간이 다 되었다. 그래서 또 허겁지겁 쌀을 씻고, 고기를 저미고, 채소를 다듬어 국을 끓이고, 정신없이 저녁 준비를 했다. 식사 후에는 또다시 설거지를 끝내고, 세탁물을 개고, 애들을 잠자리에 재우고 나니 벌써 밤 9시가 넘었다.

그러나 그녀의 일과는 아직 다~아 끝나지 않았다! 지친 몸으로 잠자리에 들은 뒤에도 평소처럼 남편의 요구대로 열심히 사랑을 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눈 뜨자마자 침대 옆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주여! 내가 정말 멍청했습니다. 마누라가 집에서 하는 일을 너무나 모르고 질투하고 말았습니다. 제발 소원하오니, 저를 당장 남자로 돌려놓아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빙긋이 웃으시며, “어제 하루 너는 정말 좋은 경험과 뉘우침을 얻었으리라 믿는다. 나도 네가 바로 남자로 돌아가길 바라지만..., 너는 오늘부터 꼭 10개월 후에야 남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넌 어젯밤에 그만 임신을 하고 말았기 때문이니까.” ✈

성무인 단상

보라매의 삶을 기억하며

공군사관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삶의 가치로 매 순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성무인들의 진한 삶의 이야기를 만난다.



송대성_17기

다섯 가지의 '지팡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평생을 살아가는 인생여정 길에는 수십만 수백만의 다양한 길들이 있다. 나는 그 수많은 길 중, '공군사관 출신들이 걸어가는 인생여정 길'을 열심히 걸어온 한 사람이다. 공사출신이라고 모두가 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걸어가는 인생여정 길의 큰 대로들은 군데군데 비슷한 측면들도 많다. 나는 4년이란 교육 기간 동안 무섭게 강조됐던 수많은 가치 중 중요한 5가지를 인생여정을 걸어가는 중요한 지팡이로 삼고 살아왔다. 지나온 길들을 되돌아보면 볼수록 모교가 나에게 만들어준 그 지팡이들이 고맙고 참된 인생으로 인도하였음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합리적 사고와 행동'이라는 삶의 지팡이를 선물 받았다. 인생에서 '합리적 사고와 행동'을 지팡이로 삼고 살려고 노력하면 그 삶은 멋지고, 당당하고, 용기 있고, 힘찬 삶의 여정이 됨을 본인은 수없이 경험했다. 훌륭한 인품은 합리적 사고와 행동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합리성을 상실한 독선과 아집은 생명력이 없고, 외롭고 고독해지며, 쉽게 소멸한다.



사관학교 교육에서 비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철저히 차단하고 교정시키는 가치관 형성에 몰입시키는 생도교육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수많은 정신훈화시간, 생도 생활교범을 조금이라도 위반할 시 무섭게 다스렸던 '감점카드' 제도, 무질서와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좁은 공간을 100% 활용케 하는 내무반 정리정돈, 합리적인 사고를 양성하는 수많은 학과공부, 지나친 이기심도 나태한 게으름뱅이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엄격한 내무 및 학과 생활, 선사후공(先私後公)을 무섭게 배척하면서 절차탁마하는 동기생 기생회 등, 4년에 걸쳐 만든 '합리적 사고와 행동'은 본인의 인생여정을 빛나게 한 참 고마운 멋진 지팡이다.

둘째, '살인적 인내력과 끈질긴 실천력'이라는 지팡이다. '살인적 인내력'이란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력을 의미한다. '끈질긴 실천력'이란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보는 실천력이다. 생도교육은 어떤 의미로 살인적인 인내력과 끈질긴 실천력을 양성하는 내성강화(耐性強化) 기간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육체가 인내할 수 있는 한계점을 느끼면서 나의 온 혼과 육체를 의식이 있는 한 포기하지 않고 사력을 다한 경험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무거운 군장 배낭을 메고 짓누르는 철모와 총칼을 장비하고 관악산 상봉을 돌파하는 특수훈련 중 입에 동물을 토해내면서 의식을 잃고 병원 구급차에 실려 가 몇 시간 후 의식이 회복된 경험은 인생 전체를 두고 잊을 수 없는, 자랑스럽게 간직하는 '살인적인 인내력'을 테스트한 인생의 지팡이다. "나는 내 목을 통해서 동물이 역류하는 혼과 육체를 총동원해서 죽기 직전까지 살인적인 인내력을 테스트했다"는 자부심 가득 찬 경험을 갖고 삶의 여정에서 맞은 수많은 역경을 적극적으로 돌파하면서 살아왔다.

“
우리는 피 끓는
배달의 아들!
높고 빛나는
한배님 정신 이어
받아서,
누리에 떨치고자
하늘로 솟나니,
우리들
영혼의 기지
공군사관학교!
”

셋째, '지성적 노력으로 전력투구'라는 지팡이다. 생도 생활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지성을 다하면서 전력투구하는 생활 태도로 살아갈 것을 요구한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그 수만 가지 부품 중 하나라도 아무 부품을 가져다가 적당히 조립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정확한 부품을 지성껏 조립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사고가 유발된다. 그래서 생도교육에서는

“적당히”, “대강”이라는 용어가 허용될 수 없다. 눈을 뜨고 아침에 기상해 저녁에 취침할 때까지 지성을 다해 매사에 임하는 태도로 생활에 몰두케 하는 것이 생도교육이다.

민간대학 위탁 교육을 받으면서 지성을 다해 전력투구하면서 만든 과제 하나가 외국 유학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가져다주었다. 합참 시절 지성을 다해 전력투구해 완성한 남북한 군축문제 연구는 대통령 보고를 거쳐 대북군축제안 원본이 되기도 했다.

“지성을 다하지 않는데 오래 움직이는 사람은 없고, 지성을 다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 없다”라는 맹자의 이야기를 사관 출신인 나는 생생한 삶의 진리로서 절감하며 살고 있다.



넷째, ‘균형 잡힌 건강을 보유하고 있는 훌륭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야만 한다는 지팡이다. 건강에는 육체적, 뇌적, 정서적, 이념·종교적, 사회친교적 건강이 있다. 이런 5가지 건강을 강조하면서 단련시키고 습관화시킨 생도교육은 내 평생의 정신과 육체적 건강을 지켜준 방벽이었다. ‘튼튼한 몸에서 튼튼한 생각이 나오고, 튼튼한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말처럼 육체의 건강을 위해 본인은 한평생 부단히 노력하며 살고 있다. 건강한 뇌를 위해 부단히 공부하고 독서하고 깊은 생각을 하면서 생활한다. 정서적으로 메마른 사람은 인성 형성과 사회발전 기여에 심각한 문제점을 포지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결국 사관학교에서 나에게 준 ‘균형 잡힌 건강을 보유한 훌륭한 대한민국 국민 됨’을 강조한 지팡이는 튼튼한 육체와 마음을 갖고 조국에 절대 충성하는 국민이 되라는 지팡이였다. 본 지팡이를 짚으면서 걸어온 지난날의 발자국을 뒤돌아볼 때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

다섯째, ‘사관 출신에 대한 강한 긍지와 자부심’이라는 지팡이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즐거울 때나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늘 속으로 중얼대는 주문 같은 말이 하나 있다. “사관 출신인 내가 이런 일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 “사관 출신인 내가 이런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지” 등이다. 사관 출신에 대한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내 인생은 한없는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온 인생이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사관출신인 나는 조국의 수호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이 진정한 양심이요, 강한 긍지와 자부심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70대 중반이라는 인생여정을 열심히 살고 있다. 조국을 위한 삶에는 정년이 없다. ✈

작별

배기준_12기

우두커니 서서
영혼마저 보내고
둔촌동 다리 건너 속세로 돌아올 때,
타박타박 뚝방길
목화꽃 구름아래로 팔월 햇살이 쏟아진다.

선배!
바람과 바람사이
순간을 영원으로 엮던 슬한 비행이야기
동터 오는 새벽녘
두만강 따라 북만주 초계비행
끝내 미완(未完)으로 남아 불새는 밤새 울어 토했다.

그리운 눈동자여
강물은 쉬임없고
전설은 망각으로 가는데
빈자리 못 다한 하늘노래 누구랑 부를까.

[시작 노트] 원점(原點)으로 돌아 간 선배와 작별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같이 비행하며 오래 하늘에 살았던 사연들이 여름 햇살이 되어 쏟아졌다.

1967년도 김포 103(ThunderBolt) 전투비행대대에서, 청주기지에서, TACC 최고사령탑에서 함께 했던 영광과 고통 - 사선(死線)을 뚫고 기지로 돌아오던 어느 운중(雲中)비행의 긴 고독과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났던 안도감, 아웅산 사건 나던 날 활주로 부판조차 식별하기 힘들었던 안개 속으로 야간 출격명령을 내려야 했던 비정(非情)함. 언젠가 사상 첫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하여 온 국민을 긴장시켰던 국영방송의 사이렌 파열음, 이런 숨 가쁜 시간과 공간의 한 가운데서 두 당사자만 알고 있는 그 BehindStory를 주고 받을 화자(話者)가 자리에 없음에, 뜨겁게 살다 간 그 불새가 이제는 돌아 올 수 없음에 울컥 슬퍼졌다. ✈

한홍섭_21기

일상(日常) 속에서

북적거리는 식당에서
모처럼 친구들과 어울리는
주말 저녁, 친구 한 명이
내게 언제까지 직장을
다닐 건지를 물었다.
직장을 핑계로 모임에
자주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한 힐책과 함께 아직도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의아스럽다는 표정이다.
전역 후 20년 동안
사회에 나와 씬 없이
바쁘게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 보았다.

1999년 1월, 헌병감으로서 병과장 임기 2년을 마칠 당시 내 나이는 50세가 채 안 되었다. 흥가분할 줄 알았던 전역일이 다가오자 허벌판에 홀로 선다는 공허함이 현실로 와 닿았다. IMF 이후 암울한 경제 상황에 사회 분위기는 침체해 있었다. 할 일을 찾지 못해 한창 일할 나이에 백수 처지가 되니 마음이 초조해졌다. 친구의 권유로 고시원을 인수하고, 전역일 다음 날 바로 상경해 업주로 고시원 관리를 시작했다. 가게에 보탬이 되고 평소 읽고 싶던 책을 보며, 여유를 갖고 앞날을 구상하려던 결정이었다. 그러나 고시원 운영을 시작하는 곧 “이건 아니다”하는 생각에 낭패감에 빠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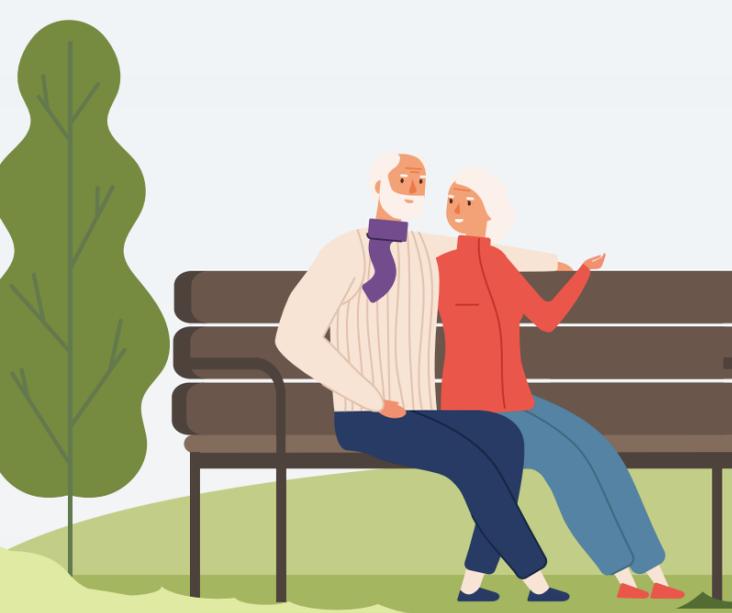
값싼 숙소에 불과한 고시원을 본연의 분위기로 만들어 보려는 노력은 번번이 헛수고였다. 직장가 가정에서 내몰린 내 또래 실직자들과 시장의 근로자들 속에 있던 학생들은 어수선한 분위기에 짐을 싸서 떠났다. 바뀐 업주를 길들여 보려는 입실자들과 유치한 기 싸움도 벌어졌다. 사회에 나와 자세를 낮추자는 다짐이 무색하게 때때로 울화가 치밀었다. 사회생활 시작부터 실패자가 되어 궁색한 변명을 하려는 내 모습이 자꾸 떠올라, 팔 때 팔더라도 일단 부딪쳐서 운영은 하자고 결심하게 됐다.

입실자들과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되 격의 없이 함께 생활하는 것이 운영의 요령임을 깨달았다. 서비스업종 장사꾼이 근엄한 표정으로 고시원을 병영의 내무반 관리하듯 밀어붙인 것이 큰 불찰이었다. 안정화된 지 1년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다. 작지만 처음으로 사업도 경험했으니 밀지는 장사는 아니었다고 자위했다.

잠시 쉬고 있을 때 몇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내 근황을 알고 있던 그는 자신의 회사에 들어오라고 권했다. ‘왕년의 영예’를 잇고 고시원에서 일하던 자세라면 못 할 일이 없을 거라는 말도 덧붙였다. 권유를 받아들여 부사장 직위로 다시 회사에 다니게 되었다. 업무는 다세대 주택 완공 후에 분양하는 일이었다. 시공, 분양에서 토지 매각까지 관련 업무를 1년 반 만에 계획대로 완결 지었다. 새 직장생활에서 성취감과 함께 첫 단추를 잘 꿰었다는 만족감을 느꼈다. 이후 술한 우여곡절 끝에 한동안 건물을 준공하면 직영체제로 내가 직접 전 사업장을 총괄하였다. 현재는 규모가 커진 회사의 여러 사장 중 한 명이며, 대외적으로 시의 승마협회장 직을 맡고 있다.

막연한 자신감만으로 시작했던 제2의 인생, 사관학교와 군 생활을 통해 다져진 적응력과 충직함이 심신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왔다. 닥치면 될 줄 알았던 착각 속에 전역 후 갈 길이 먼 미래에 대한 고민과 준비를 소홀히 한 것은 일말의 회한으로 남는다. 취미를 즐기는 주변 친구들이 종종 부럽기도 하지만, 아직 건강하게 다닐 수 있는 직장의 일상에 보람을 느낀다.

수년 전부터 주말이 되면 아내와 함께 시골로 향한다. 복잡한 도시와 다른 전원이 주는 여유로운 정취에 이끌려 어릴 적 소풍 날짜 기다리듯 은근한 설렘이 있다. 나이 들어 뒤늦은 전원생활의 풍류와 낭만은 이제 언감생심(焉敢生心. 어찌 감히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으랴)이지만, ‘제3의 인생’을 대비하며, 마지막 호기를 부려 볼까 생각 중이다. 🌟



류춘열_30기

내 삶의 여정 (旅程)

나에겐 언젠가 읽었던 글 한 토막이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하는 마지막 순간에 인생은 쉽게 넘어가 주는 법이 없고, 한 사람의 인생을 철저하고 잔혹하게 점검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늘 삶이 지속된다는 가정 아래 글을 쓰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지금을 인고한 후, 주어질 혜택’을 중심으로 구성하곤 한다」라는 글이다. 이 한 토막의 짧은 글이 특별한 것은 우리 삶의 여정을 잘 함축하여 표현해 주는 글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 글이 전하려는 의미처럼 우리 삶의 여정은 늘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렇더라도 나는 늘 익숙한 일상의 웅덩이에 소소한 이야기가 머물러 고이도록 바로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한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에게는 무심히 지나가는 밋밋한 시간일지라도, 나는 그 일부의 흔적을 남겨 내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는 사색의 일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사색과 감동으로 심장 박동이 요란해진다면 내 가슴은 더욱 달궈지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 매일매일 맞이하는 익숙한 일상을 낫설고 새삼스러운 설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군 현역 시절, 매사에 스스로는 정의롭다고 생각했지만 다소 날카롭고 각진 성격 때문에 배척당할 때마다 분을 삭이며 눈물 흘렸다. 그러면서도 바람보다 먼저 눕지 않으려 애쓴 시간만큼은 사랑받아 마땅하다고 자부한다. 많은 사람들은 강직하고, 선이 굵고, 우렁찬 전투적 속성들을 군 조직의 쿨한 상징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나에게는 절대 쉽지 않은 군 생활의 연속이기도 했다. 변명 같지만 말이다. 비교적 직설적이고 날카롭고 강하게 주장하는 내 방식의 의견들은 대부분 약점이 되어 상처로 돌아오기도 했다. 납득할 이유는 증발하고, ‘강성’이라는 두 글자가 나를 묵직이 눌렀다. 진실은 사실과 다르다. 사실은 일어난 사건이고 진실은 일어난 사건을 인정하는 힘이다. 그런데 어떤 개인을 평가하는, 소위 ‘세평’ 즉 ‘평



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개인에 대한 사실과 진실이 아니라 ‘인식’이다. 즉 기본적으로 평판은 타인이 내리는 판단일 뿐이다. 그 사람의 사실적 진면목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모습이라는 것이다. 예전에는 왜 그런 세상 이치를 몰랐을까?

그러나 어쩌면 나의 진짜 내면에서는 ‘타인의 평판이나 암묵적 잣대에 의해 꺾였던 시간보다, 타인의 부정적 평가와 한계를 핑계로 가끔 스스로 꺾이기를 선택했던 나약함’을 경계하자 다짐하고, 지금도 그 다짐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사는 지도 모른다. 나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무수한 반복으로 점철되는 일상을 끔찍스럽게 여기며 어떻게든 탈주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사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많은 부침과 상심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삶에서 변함없이 돌아오는 하루하루가 요새 와서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스럽게 깨달을 때가 많아졌다.

나는 아침 공복에 마시는 신선한 생수 같은 시(詩) 한 편을 찾아냈다. 폴란드의 시인 쉘보르스카의 시 ‘두 번은 없다’다. 나는 이 시를 매일 아침 읽고 시인이 전하려는 의미를 반추해 보려고 한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제란 없는 법.’**

시인은 말한다. 두 번은 없다고. 우리 생에서 두 번은 없으니 쓸데없는 불안으로 두려워 말라고.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며, 너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고. 그래서 또한 더 아름다운 것이라고.

사람은 저마다 주어진 삶이 다르지만, 넘어지고 일어서는 포인트는 비슷하다는 생각에 기꺼이 동의한다.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만만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도 동의한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삶은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이 충만한, 온전히 나만의 정체성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삶이기를 소원하고 조금 무리해서라도 실행으로 옮겨보려는 것이다. ☘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한 KB국민은행 군인연금수급권자 전용 상품

KB군인연금 협약대출 **최저 연 2.70%** (최대 2억원)
KB나라사랑적금(직업군인용) **최대 연 5.6%**



KB군인연금 협약대출 **최대 2억원**

대출대상 KB국민은행으로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군인연금수급권자
(당행 CSS 심사기준 충족 시)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일시상환 및 종합통장자동대출 최대 3천만원)

CSS등급	1등급	2등급	3~4등급	5~6등급
가중치	180%	160%	140%	120%

- 한도 산정방법: 연소득 × CSS등급별 가중 -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부동산담보대출 제외)

대출금리 **최종금리 최저 연 2.70%**
(신용등급 3등급, 2년 미만, 일시상환, 2019. 4. 21 기준)

기본금리 연 1.83%, 가산금리 연 1.87%p
(6개월 변동금리, 2019. 4. 21 기준)

우대금리 최대 연 1.0%p

- ① 연금이체 : 연 0.3%p
- ② 신용카드 : 연 0.3%p
- ③ 자동이체 : 연 0.2%p
- ④ 스타뱅킹 : 연 0.1%p
- ⑤ 적립식예금 : 연 0.1%p

대출기간/상환방법 일시상환 : 1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1년 이상 최장 5년 이내
※ 이자 또는 원리금은 매월 25일 후취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원금×중도상환수수료율(0.6%)×(잔존일수÷대출기간)
※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 기간이 3년이상 또는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준비서류 군인연금증서(카드형 포함) 또는 군인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수령통장(필요 시)

신청방법 영업점 방문 신청(서류 문의 포함)

※ 본 상품은 당행으로 연금이체가 필수이며, 대출상당/접수 시 타 금융기관으로 연금이체 중인 경우 당행으로 연금수급계좌를 변경하여 1회 이상 연금 입금 확인 후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 약정납입일(자동이체일)은 매월 25일로 지정하고 연금수령계좌를 자동이체 계좌로 지정해야 하며 약정납입일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KB나라사랑적금(직업군인용)

가입대상 군인연금수급권자, 복무중인 직업군인 및 군무원 (1인 1계좌)
※ 장교, 준사관, 부사관, 각 사관생도, 각 사관 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저축금액 **매월 1천원 이상 50만원 이하**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예금

(2019. 4. 21 세전 기준, 단위: 연, %)

기본이율/ 최고이율	계약기간			
	1년제	2년제	3년제	
적용이율	최고	5.0	5.3	5.6
	기본	1.5	1.8	2.1

우대이율 **최고 연 3.5%p**

- ① 연금(급여)이체 : 연 2.2%p
- ② 신용카드 : 연 0.5%p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0.3%p
- ④ 앱(App)가입 : 연 0.3%p
- ⑤ KB스타클럽 : 연 0.1~0.2%p

준비서류 군인연금수급권자 : 군인연금증서(카드형 포함) 또는 군인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복무중인 직업군인 및 군무원 : 복무확인서류 등



금융수수료 면제 서비스

KB국민은행으로 군인연금을 수령하거나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급여를 수령하는 고객

- ▶ KB국민은행 ATM 출금·이체 수수료, 타행 ATM 출금 수수료 **무제한** 면제
- ▶ 인터넷·폰뱅킹 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
- ▶ 편의점(GS25·세븐일레븐) ATM 입금/출금/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
- ▶ KB국민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월 5회** 면제 (급여이체자는 **무제한** 면제)

[상품 가입 전 알아두실 사항]

- ※ 예금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으로,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최고이율은 우대이율을 포함한 이율이며, 우대이율은 만기해지 계좌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합니다.
- ※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수입인지 비용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 부과되며, 분할상환대출은 원리금 납입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일시상환대출은 14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 부과됩니다.
-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9-0679호(2019.04.25), 광고물 유효기한 2020.06.30까지



일등 한화의 힘은 혁신입니다.

자체기술로 10년이 걸리는 개발기간을
4년 6개월로 단축해 세상을 놀라게 한 천무!
(주)한화는 도전과 혁신의 힘을 믿습니다.

혁신적인 Defense Solution을 제공하는 신뢰받는
글로벌 파트너로 자주국방과 인류평화에 기여합니다.

(주)한화/방산

1st

2005년 우리는
이 땅에 LCC를 알리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길은 가시덤불이었고
때론 낭떠러지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전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항공의 역사가 바뀔 수 있었고
사람들의 여행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여행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충분하다 하지만
새로움을 향한 우리의 비행은 멈출 수 없습니다

고객이 만나게 될 완전히 새로운 여행은
우리가 만드는 새로움에서 시작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최초의 비즈니스에 도전합니다

누구나 가는 코스가 아닌, 여행지의 새로운 기준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오프라인에 머물지 않는, 디지털의 새로운 기준을
비행을 넘어,
여행 전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여행입니다

어제의 하늘을 넘어
새로운 항공으로

NEW STANDARD
제주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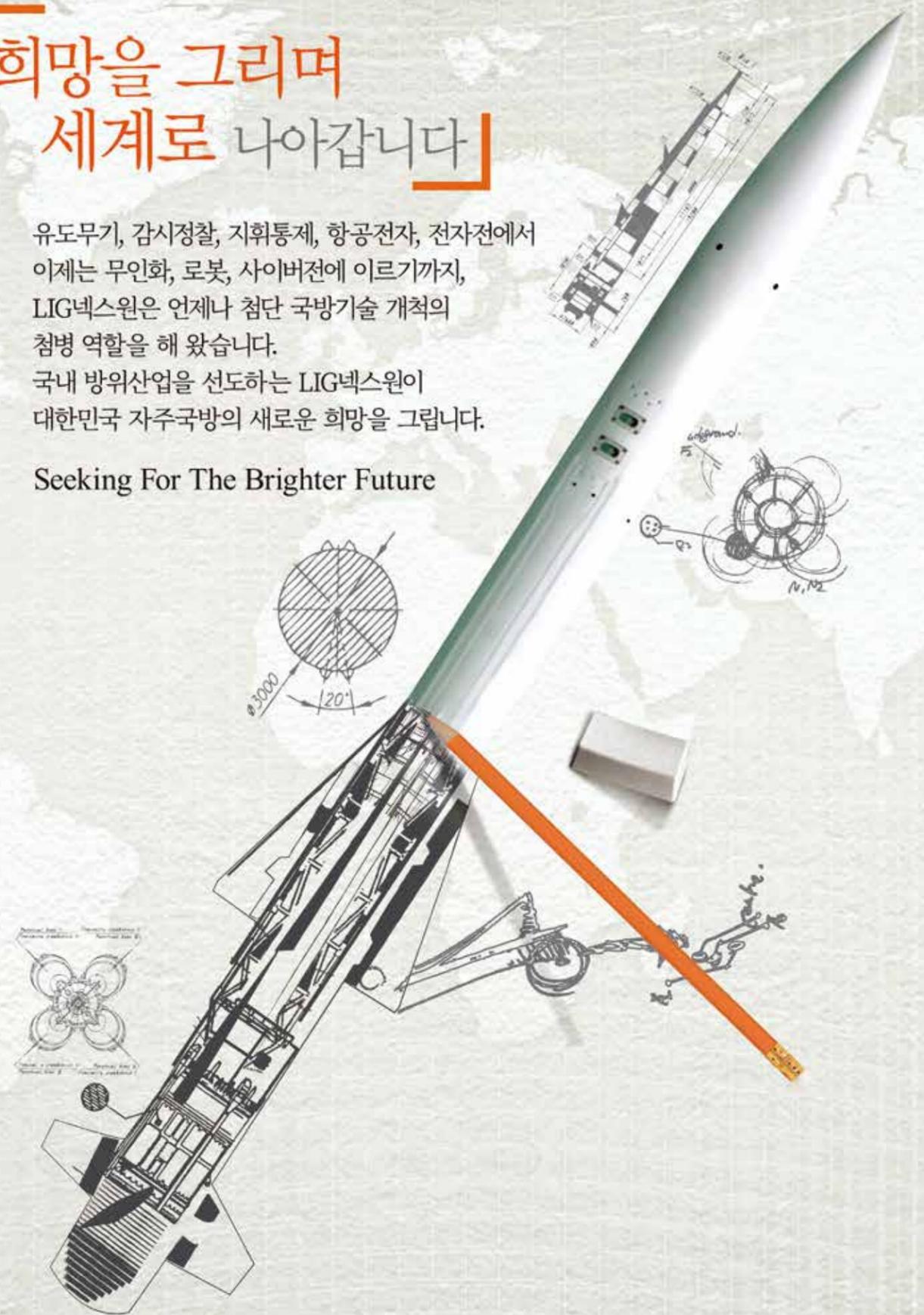
JEJUair
NEW STANDARD

LIG Nex1

「희망을 그리며 세계로 나아갑니다」

유도무기, 감시정찰, 지휘통제, 항공전자, 전자전에서
이제는 무인화, 로봇, 사이버전에 이르기까지,
LIG넥스원은 언제나 첨단 국방기술 개척의
첨병 역할을 해 왔습니다.
국내 방위산업을 선도하는 LIG넥스원이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새로운 희망을 그립니다.

Seeking For The Brighter Future



www.lignex1.com

LIG넥스원은 정밀타격체계, 지휘통제통신체계, 감시정찰체계, 전자전체계, 항공전자 등 첨단 무기체계의 개발 및 국산화로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희망을 열어가는 자랑스러운 우리기업입니다.

총동창회 알림



서울 보라매공원의 옛 '성무교회' 문화재 등록

공군역사기록관리단,
문화재청과 서울시에
적극 요청, 결실 맺어



성무교회 준공식
('64. 07. 21.)

1960년대부터 20여년간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추억이 깃든 옛 성무교회가 문화재로 공식 등록되었다. 문화재청은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 위치한 옛 '성무교회' 건물을 문화재로 등록한다고 2019년 2월 밝혔다. 성무교회로 불렸던 이 건물은 1964년 옛 공군사관학교 교정(현 보라매공원) 내에 지어졌다. 당시 미 공군장병과 국내외 신자들의 성금 2만 8000달러를 모아 만들어졌으며, 급경사로 디자인된 지붕 형태와 수직성을 강조한 내부공간 등은 당시 일반적인 교회 건축형식에서 벗어난 독특한 건축 기법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85년 공군사관학교가 충북 청원군으로 이전하면서 한동안 창고로 쓰이는 등, 방치되어 오다가 공군·서울시간 협약을 통해 현재의 동작 아트갤러리로 리모델링하여 전시공간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최근 들어 인근 보라매병원 신축 부지에 포함되어 철거될 위기에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였다.



독특한 건축양식으로
평가받는 성무교회

이에 따라 공군(역사기록관리단)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본 건물이 역사적, 건축학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점을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과 서울시(역사문화재과)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현장 공동실사 참여와 자료 제공을 통해 등록문화재 승격을 요청하였다. 문화재청과 서울시에 서로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마침내 소기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옛 성무교회는 철거의 위기에서 벗어나 문화재관리법에 따라 보존 관리되어 공군사관학교 출신들의 마음의 고향으로서 영원히 남아있게 될 것이다.

회비 납부 안내

평생 회비 납부

평생 회비 입금 계좌

우리은행 319-239049-01-001(예금주: 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

국민은행 485501-01-343421(예금주: 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

평생 회비란?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의 적립기금으로써, 회원 전원이 **평생에 한 번 분담하는 회비이며 1인 당 20만 원**입니다. 평생회비는 매년 총동창회 운영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적립기금의 이자로 총동창회를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원금 및 이자를 은행에 계속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총동창회 연간 운영경비는 기별분담금, 찬조금, 광고비, 운영기수 찬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대부분 운영기수 찬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영기수가 되면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후배를 위하여 선배들이 감수하고 있는 현실임을 이해하고 미납회원은 평생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요망합니다.

평생회비 완납기수

1~34기, 57기, 59기, 61기, 63기, 65기

기별 분담금 납부

기별 분담금 입금 계좌

국민은행 485501-01-344019 예금주 : 황연주 (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

기별 분담금이란?

매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총동창회 운영경비의 일부를 일정액 분담하여 지원하는 당연직 이사기수 연회비로서, 운영기수를 기준으로 선배 **8개 기수(19~26기)는 40만 원씩, 운영기수를 포함하여 후배 21개 기수(27~47기)는 60만 원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제27차년도 운영기수는 27기로 이사기수는 19기~47기**입니다. 본 회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기별 분담금은 총동창회 운영이 시작되는 매년 7월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회비
납부 현황

(기간: '18.07.01~'19.06.30)

기수	현재 인원	납부 인원	미납 인원	납부자명단		
35	249	137	112	김덕현, 김성표, 김용일, 김용한, 김운용, 김재환, 김중희, 나정균, 남유열, 박승룡, 배형모, 손영길, 신익섭, 안재찬, 오수창, 오승윤, 윤승원, 이병휘, 이영찬, 이영택, 이창호, 임성훈, 정대한, 진광수, 진용일, 최규권, 최상욱, 최용현, 한재철		
36	256	32	224	권익현, 이종국, 허현행		
37	255	87	168	강창봉, 김길현, 김선진, 류길섭, 문인수, 이국진, 이규완, 이정복, 이정용, 이환흥, 정장룡, 정종찬, 진범주, 진준호, 최종원		
38	231	76	155	김종규, 안광영, 이태희		
39	220	16	204			
40	241	22	219			
41	238	13	225	설현주, 양희석, 이광영, 이형동, 전준강		
42	275	29	246	43 271 26 245		
44	221	11	210	백장욱 45 220 21 199		
46	227	4	223	고휘석 47 201 5 196		
48	192	105	87	49 200 3 197		
50	193	4	189	51 203 2 201		
52	203	2	201	유현식 53 211 3 208		
54	192	0	192	55 186 2 184		
56	155	2	153	57 157 157 0 서영민, 최진욱		
58	134	0	134	60 148 1 147		
62	145	0	145	64 160 50 110		
66	137	0	137	67 148 0 148		
계	현재 인원 : 9,373		납부 인원 : 4,421		미납인원 : 4,952	

※ 입금명 '공사총동창회비'('12.7.27)로 납부하신 회원께서는 기수와 성명을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금
현황

● 성무지 광고비

입금 완료(후원액/입금일/한글 순)

순번	후원체명	관계인(기수), 직책
1	삼양화학공업(주)	강경한(31기) 이사
2	한국항공우주산업(주)	-
3	(주)부영주택	최환중(32기) 사무총장
4	한국치공구공업(주)	박영욱(22기) 대표, 부중배(22기) 고문
5	(주)백마종합물류	한동석(31기) 대표, 배충영(26기) 고문
6	(주)라마다 호텔&스위트 강원평창	박성보(26기) 부회장
7	(주)티웨이항공	-
8	신디아테크(주)	-
9	(주)한화/방산	이선호(31기) 상무
10	아시아나항공(주)	김광석(35기) 운항기획 상무
11	에어서울(주)	-
12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장석철(33기) 본부장
13	공군회관 SKY컨벤션센터	김동욱(33기) 회관장

입금 예정(후원액/한글 순)

순번	후원체명	관계인(기수), 직책
1	Lockheed Martin	황명진(26기) 상무
2	AIRBUS	-
3	(주)KB국민카드	정재형(31기) 국군금융지원단 1단장
4	군인공제회	김도호(28기) 이사장
5	에어부산(주)	-
6	군인공제회C&C	이광수(33기) 대표
7	LIG넥스원(주)	-
8	Pratt & Whitney	-
9	(주)KB국민은행	정재형(31기) 국군금융지원단 1단장
10	(주)대한항공	-
11	(주)진에어	-
12	(주)풍산	-
13	한국공항공사	-
14	(주)제주항공	-

● 찬조금 내역

(단위 : 만원)

성명	금액	성명	금액
공군참모총장	600	윤학수(25기)	100
최홍선(5기)	10	정지수(11기)	10
심인태(30기)	10	19기 동기회	10
전공상유공자회	10	기타(행사)	20

● 후원 내역

한국공항공사	테니스대회 후원금 300만원
25·26기 동기회	에어컨(스탠드, 벽걸이) 증정
성일환(26기)	회의실 TV 증정
이태인(26기)	이동형 애플/마이크 증정

● 공사총동창회 발전기금 기부

(단위 : 만원)

성명	금액
김준수(7기)	100
심인태(30기)	200

주요 업무 보고

● 회원현황

- 임관 총인원 : 10,182명
- 현재 인원 : 9,345명
- 예비역 인원 : 5,217명



● 적립기금(평생 회비) 현황

구분	금액	비고
기금 인수	1,097,262,677	25차년도인계금
26차년도 적립	30,274,731	평생 회비 12,000,000 이자 수입 15,274,731 후원금 3,000,000
적립 총액	1,127,537,408	

● 주요 추진사업

1. 총동창회 홈페이지 및 밴드 모임 활성화
가. 홈페이지 - 동호회 모임방 개설(등산, 자전거, 테니스 등)
나. 밴드 모임 - 현역 적극 참여 유도로 가입 회원 증원
2. 신규 동아리 모임 결성 및 운영 : 테니스, 자전거, 트래킹
3. 친목 행사
가. 테니스대회 (2018.11.10) : 부천 종합운동장, 한국공항공사 후원
나. 바둑대회 (2018.11.14) : 공군회관
다. 등산대회 (2019.4.24) : 서울 대공원
4. 순조회(순직조종사 부인회) 초청행사(2018.12.5) : 공군전우회 공동 주관으로 오찬 및 선물 증정
5. 제67기 졸업 축하 및 격려 : 성무보라매상 수여, 졸업생도 선물 증정
6. 임관기념 행사 (2019.5.25)
가. 5개 기수 10주년별 : 17기(50주년), 27기(40주년), 37기(30주년), 47기(20주년), 57기(10주년) 동문 및 가족 등 약 1,000여 명 참석
나. 모교 발전기금 전달 : 총 2억9천여만원

정기총회

제26차년도 운영결과 보고

● 26차년도 운영 중점

「동문이 함께하는 총동창회」

1. 모교 발전 지원
2. 동문 친목 및 유대 강화
3. 내실 있는 사업 추진
4. 회원 관심 제고 및 자긍심 고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도 해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늘은 슬피 울어도 내일은 기쁨이 찾아올지 모른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늘은 분노로 가득 차 있지만, 내일은 소리 내어 크게 웃을지 모른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허무해도 내일은 희망이 찾아올지 모른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늘은 내 주머니가 비록 초라하지만, 내일은 가득 찰지 모른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늘은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내일은 찾아주는 사람들로 차고 넘칠지 모른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일에 대해 누가 비방해도 몰라도 생각하고 결코 주눅 들거나 멈추지 말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영광에 대해 시샘이나 따돌림당할지라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것에 대한
공지와 자부심을 갖고 더욱더 최선을 다하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마음같이 믿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등을 돌리며 떠나갈지 모른다.
진심으로 당신이 그를 이해했다면 그를 용서하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노화 늦추는 생활습관 한 발 서기

건강 전문가들은 신체 노화는 하체 근육 쇠약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증상은 50대부터 관찰되므로 늦기 전에 하체 건강 관리에 힘써야 한다.

미국 듀크대학 연구팀은 30대에서 100세까지의 성인 남녀 775명을 대상으로 기초체력과 지구력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를 했다. 걷기, 한 발로 서기, 의자에서 일어세기 등 간단한 신체활동의 테스트였다.

그 결과 신체 기능에서 가장 먼저 쇠퇴하는 것은 하체였다. 즉 참가자들은 ‘한 발로 서기’와 ‘의자에서 일어나기’에서 문제를 겪었다. 특히 50대부터 쇠퇴가 나타났으며, 6070 세대 참가자들은 지구력과 걷기 속도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노화로 인한 신체 능력의 감퇴는 하체 근력에서 먼저 시작된다. 40대 이전 규칙적인 운동으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 미국 듀크대학 연구팀 캐서린 홀 교수



지난해 일본 교토대학 발표 연구에서도 ‘한 발로 서기’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연구팀에 따르면 MRI에서 뇌경색이 2곳 이상 발견된 사람 중 34.5%가 한 발로 서서 20초를 넘기지 못했다. 한쪽 다리로 20초 이상 서 있지 못하면 뇌경색이나 치매의 위험신호일 수 있다. 뇌 기능의 문제로 인해 몸의 균형이 틀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 발 서기를 꾸준히 하면 혈류가 좋아져 뇌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일상 속 틈틈이 한 발로 서는 운동을 실천해보자.

유태인의 지혜

'Family ship'

편집부

유태인은 비록 미약하지만, 소강국(小強國)임에는 나름의 지혜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냉전시대에 자유 또는 공산 진영에 치열하게 가담하였다. 이유는 미래에 대한 보험을 들기 위해 현재만의 상황에 머무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미국에서는 보수의 공화당과 진보의 민주당으로 균등하게 나누어져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목표는 단 한 가지이다. 그것은 바로 유태인을 위한다는 것이다. 역사를 통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칠 경우에는 멸족되고 마는 비운의 경험을 잊지 않기 때문이며, 정치적으로는 비록 어느 쪽에 속하더라도 근본 목적인 유태인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좌·우를 불구하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공존하며, 물밑으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마치 큰 나무는 뿌리와 가지가 좌·우와 앞·뒤가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만 가장 튼실하고, 좋은 열매를 맺듯이...

지금은 사회가 좌·우로 극렬하게 대립하면서 서로에게 굽히는 정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전멸되기를 노린다. 이런 때에 우리끼리도 반대 진영의 동창들에 대한 거친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음이 개탄스럽다. 우리 공군은 약자이기에, 항공력이 전쟁억제와 전승에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대군(大軍)의 기득권 때문에 도외시 되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권력을 독점해 온 반면, 공군은 변두리 처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국방부를 비롯, 여러 분야에서 주역이 되었고, 그로 인해 공군인들에게 힘이 되고 비전이 되고 있다. 이것은 행운이자, 놓칠 수 없는 기회이기에 정쟁으로 인해 깨어져서는 안된다.

우리도 유태인의 지혜를 본받자. 양진영에 균형되게 뺏어서 다양하게 발전해 보자. 애국의 길이 단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길도 있음을 인정하자. 그리고 어느 쪽에서든지 약진함에는 갈채를 아끼지 말자. 모두 우리의 공군을 키우는 자양분이기 때문이다. 한 시대의 정쟁에 불과한 때에, 식구들끼리 부디 깊은 상처는 주지 말자. 함께 할 품(동창회)으로 돌아와 얼굴을 마주할 사람들이다. 정치와 종교에 관한 한, 절대로 강요할 수 없다는 이치를 잊지 말자. 국민들의 신망과 기대를 받는 최고의 지성인들답게. (총동창회는 동문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촉매제 역할이므로 제언함) ☘

편집 후기

전년도 후반기인 편집 초기 기고문이 너무 적어 실망이 컸다. 기획 기사인 '화제의 동창'을 신설해, 직접 발로 뛰며 동창들을 방문해 취재했다. 그리고 일부 특정인들에게는 기고를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한편으로는 읽기 편하도록 지면은 크게 하고, 분량은 줄였다. 이에 따라, 지면하에의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투고량을 줄여 게재하였음에 이해를 구한다. 회보에 대한 지극한 애정으로 성심껏 보내준 원고를 어쩔 수 없이 차기 회보로 넘길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를 구하며 앞으로도 성무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의 전통적인 군사 전문지의 냄새를 빼내고 한집안 식구이자 동호인(同好人)으로서의 모습으로 탈바꿈을 시도한 바가 어떻게 비취질지 두려움도 든다. 아무쪼록 본지의 정체성에 부합될 수 있는 고견을 기대해 본다.

끝으로 인터뷰 취재를 위해 멀리서 경기도 화성시와 세종특별자치시까지 기꺼이 동행해 주시고, 대상자들의 시간에 맞춰 귀한 시간을 쪼개 주신 박미진 기자와 살인적인 분량의 기고문을 짧은 기간 내에 빈틈없이 분석하여 감수(監修)해 주신 편집위원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회보발간비 마련을 위해 체면을 불구하고 애써 주신 성일환 회장, 이태인 사무총장, 임원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기고 안내

본 지는 연간 1회에 한해 발행(매년 7월경)하고 있으나, 기고는 언제든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편집 기간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매년 3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성무인 가족들에게 전하거나 나눌 수 있는 내용이면 어떤 내용이든 환영입니다. 많은 기고를 부탁드립니다.

발행일 2019. 7.

발행인 성일환(공사총동창회장)

편집인 박성보(편집위원장)

(위원: 권영한, 조희연, 최병학)

발행처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주소 (0694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공군 항공안전단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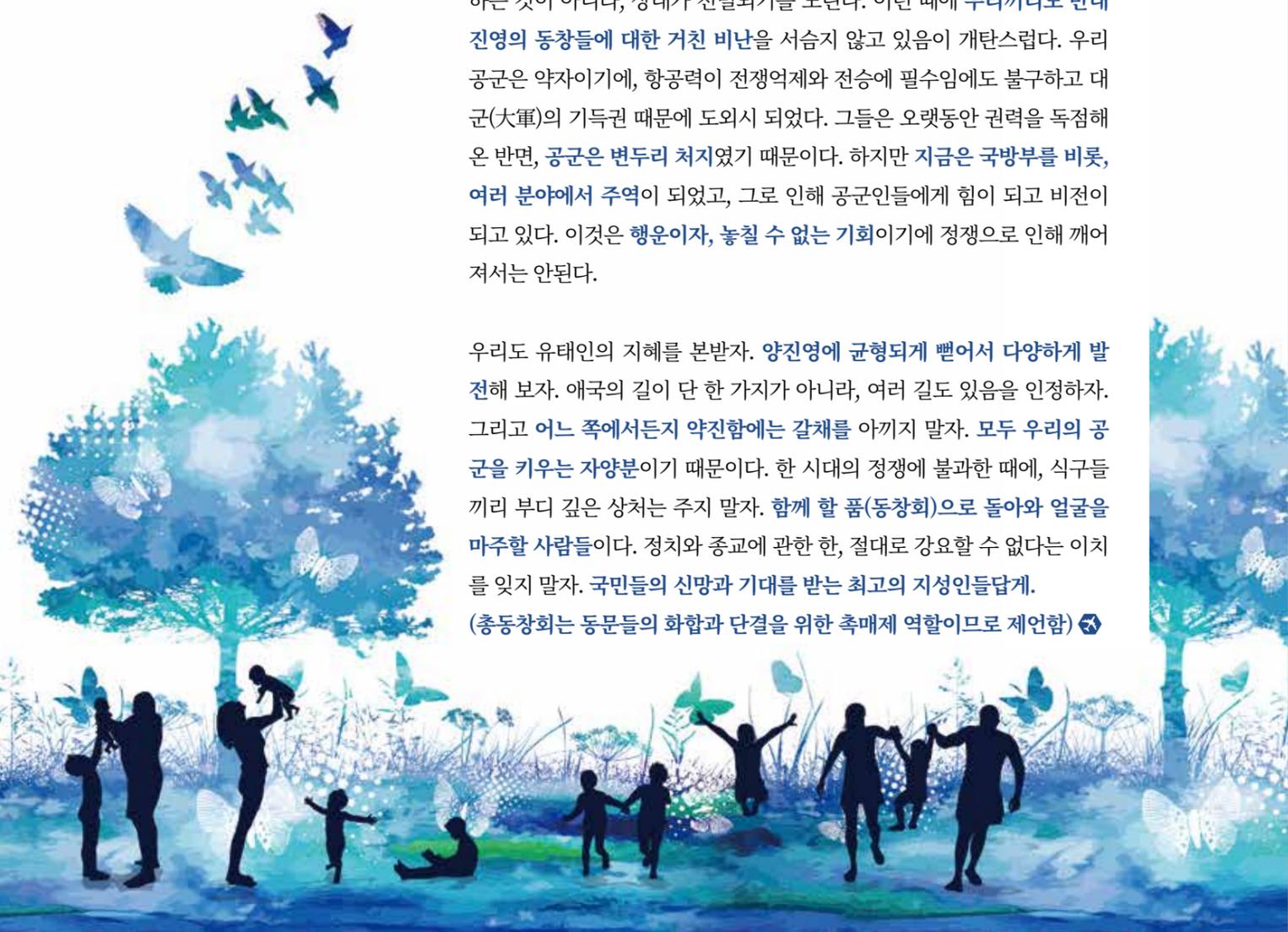
연락처 (02)823-1091, Fax (02)823-1092

E-mail 04airfa@hanmail.net

홈페이지 www.kafaaa.or.kr

편집대행 플러스에스 TEL.070-8624-3837

디자인 디자인엘리스 @designalice insta



이제 국민이
당신의 혜택을 지킬 차례!



KB국민카드와 함께 풍요로운 혜택
**KB국민 군인연금증
신용카드 EVENT**

카드 사용 시 캐시백과 공기청정기 경품! (2019.6.1~7.31)

- ① 행사기간 내 누적 50만 원 이상 이용 시 5천 원 캐시백
- ② 행사기간 내 누적 50만 원 이상 이용 시 공기청정기 10명 추첨

* 행사기간 동안 이용금액 합산 기준이며 캐시백은 본인 카드 결제금액으로 입금예정

- 대상 KB국민 군인연금증 신용카드 회원 (KB국민 카인, 비비, 신생카드 제외)
- 유의사항 행사 ①, ② 중복 참여 가능 (행사 각각 회원 별 1회만 지급), 추첨일 이전 대상카드 해지 및 교체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 당첨 후 지급일까지 우선 연락 불가 시 당첨이 취소됩니다.

* 본 행사는 KB국민카드의 영업정책 및 제휴업체의 사정으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5대 업종 할인 (서비스 적용 조건: 승인 건당 최소 7만원 이상 이용 시 할인)

구분	할인액	진행 실적	할인한도
대형마트, 백화점, 학원, 병원, 대중교통	4천원	30만원 이상 월 2회 (8천원)	50만원 이상 월 4회 (1만 6천원) 100만원 이상 월 6회 (2만 4천원)

• 생활필수품 할인 (서비스 적용 조건: 승인 건당 최소 1만원 이상 이용 시 할인)

구분	할인액	진행 실적	할인한도
GS칼텍스	80원/L		월 주유이용금액 20만원까지
통신요금 자동납부	2천 5백원	30만원	2천 5백원
CGV 영화	5천원		월 1회, 연 12회

• 군 복지시설 할인 (서비스 적용 조건: 승인 건당 최소 3만원 이상 이용 시 할인)

구분	할인액	진행 실적	할인한도
군 복지시설	4천원	100만원 미만	3만원
	6천원	100만원 이상	4만원

• 기타 할인 (서비스 적용 조건: 승인 건당 최소 패밀리 레스토랑 3만원, 온라인 서점 1만원 이상 이용 시 할인)

구분	할인액	진행 실적	할인한도
패밀리 레스토랑	1만원		월 2회, 연 12회
온라인 서점	2천원	50만원 이상	월 1회, 연 6회



여행의 힘을 믿으세요,
go abroad.
에어부산

*연체료를 회원별/이용상품별 정상이율 +3%p, 최고 연 24% *연체발생 시점에 정상이자율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함. 일시불 거래 연체시: 거래발생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시: 거래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무이자할부금리 적용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 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규약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연회비: K-World(UCB) 9천원, 국내외겸용(Master) 1만원 *전월 실적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 할인 및 개별 서비스 한도가 적용됩니다. 카드 신청 시 전월 이용실적, 할인한도 등 세부사항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www.kbcard.com), 상품설명서,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19-C2d-04501호 (2019.06.10~2020.06.09)



사랑으로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사랑으로」부영 -

부영은 더 큰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에도 적극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고교·대학교 교육시설 건립 기증



아·태지역 초등학교 교육기부 기증



고객의 물류를 책임지는 가장 신뢰받는 종합물류기업

국내 전지역 물류 Network를 보유
one stop 화물관리 services



- 항공/해상 수출입 화물운송 서비스
Export and import cargo trucking services

- 창고 보관 서비스
Warehouse services

- 수출 포장 서비스
Export packing services

- 컨테이너 하역 서비스
Container Loading and Unloading

- 환적화물 서비스
Trans Shipment Services



CEO 한동석
· 공군사관학교 졸업(31기)
· 현 (주)백마종합물류 대표이사

BML 백마종합물류(주)



대한민국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트레일러, 레일형 (4000A trailer, rail type / 1730-37-526-7798)

▶ 지난 30여년 간,
한국치공구는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자 꾸준히 역량을 다져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을 내다보고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Test Fixtures



T/FA-50 전기체 지상시험장비 개발

Major Structures



천궁(M-SAM) 다기능레이더 셀터 및 플랫폼 개발

Conventional Assembly Jigs



항공기 날개, 동체 등 조립을 위한 조립치공구 개발

A330 MRTT 공중급유기 최선의 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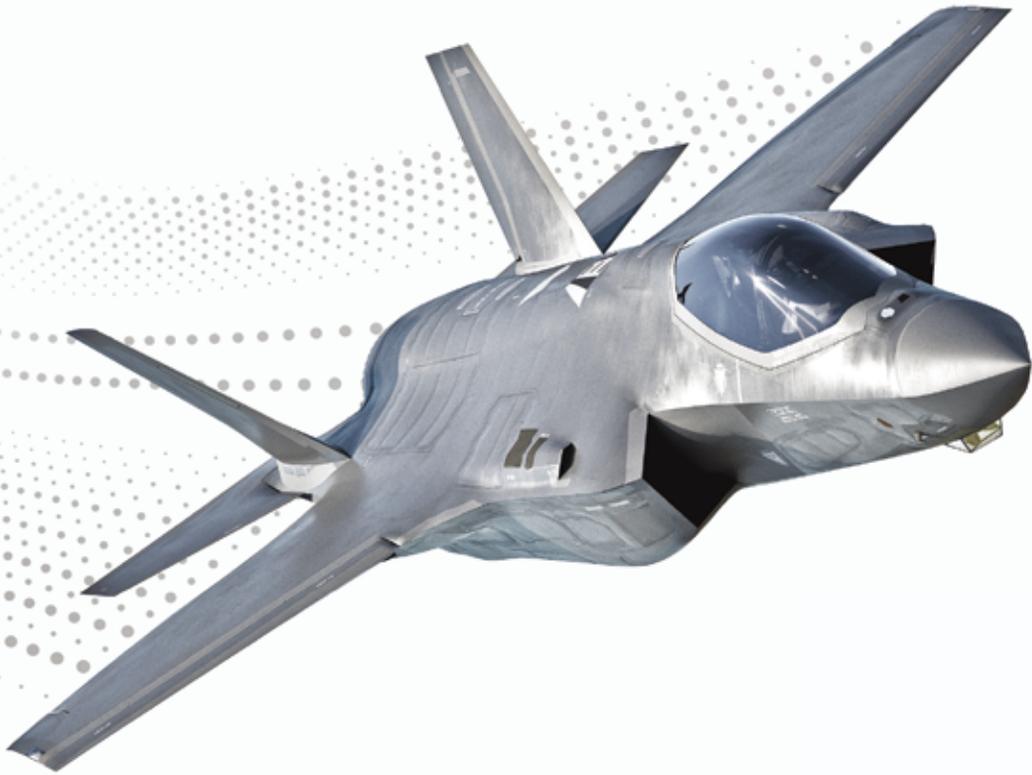
FLY
WE MAKE IT

A330 MRTT(다목적급유수송기)는 타사 공중급유기 대비 더 많은 연료, 인원 및 화물수송이 가능합니다. 최소의 비행시간을 활용하여 작전 요구사항 충족이 가능합니다.

자동 급유체계, 확장된 연결체계 등의 최신 기능을 추가하여 운용능력을 지속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A330 MRTT를 이미 신뢰하고 있는 기존 운전자들과 함께 최고의 공중급유기로 선택받은 MRTT 운용경험을 함께하십시오.

Benchmark. We make it fly.

F-35 스텔스 전투기가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중대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한 강력한 공군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향후 수십 년간 F-35가 제공하는 평화와 안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대한 역사적 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F35.com/korea에서 확인하십시오.

Lockheed Martin. Your Mission is Ours.®

